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5일)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고려 사리·사리구 100년만에 고국으로

조계종·문화재청, 보스턴미술관과 합의 도출

고려 불교미술 정수 담긴 성보
부처님, 고려 선사 사리 담겨
사리-기증, 사리구-대여로 환수
부처님오신날 전 조계종에 기증
"사리는 성물, 여법히 모실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0년만에 고국으로 오는 보스턴 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정수가 담긴 사리구와 그 안에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과 선사들의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관장 테이틀바움, 이하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및 사리구의 환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리는 불교의 성물로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조계종에 기증하며, 사리구는 상호 교류 전시 및 보존처리 등을 위해 임시대여하기로 협의했다. 대여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관 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사리구의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로,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 성물이다. 사리구 내부에는 '은제도금팔각당형 사리구' 5기가 안치돼 있다. 사리구에 쓰여있는 명문에 따르면 각각 석가모니 부처님 5과, 가섭불(과거칠불 중 6번째 부처) 2과, 정광불(석가모니에게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내린 부처) 5과와 고려시대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승려 지공 선사 5과,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선지식 나옹 선사 5과의 사리가 담겨있었다. 다만, 현재는 석가모니불 1과, 지공선사 1과, 나옹선사 2과 등 총 4과의 사리만이 현존하고 있다.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 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주 회암사가 원소장처다.

이번에 기증되는 사리는 한국 불교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고려시대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사리 기증을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현지에서 협상에 나선 조계종은 사리 환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부처님과 선사들의 진신사리(眞身舍利)는 불교의 성물이자 존귀한 예경의 대상으로, 환지본처의 의미를 새기며 사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법하게 모실 것"이라며 "보스턴미술관 측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리구의 임시대여도 국외로 반출된 지 약 한 세기만에 첫 국내 반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전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고려불교미술의 우수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사리구가 국내 임시대여 되는 동안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사리구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고려시대 공예품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사리 기증 및 사리구 임시대여 추진이라는 협상 성과를 통해, 사리는 불교의 성물(聖物)로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고, 사리구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화유산으로서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조계종, 보스턴미술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하에 남은 과제의 일정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이번 계기로 보스턴미술관과의 상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로구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윷놀이를 마치고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다문화가족과 갑진년 첫 자비나눔

2월 6일 종로구가족센터서 6개 가족과 '떡국 만들기'

진우 스님, 아이들에 설빔 선물
아이들 세배 올리며 스님과 인사
진우 스님 "건강히 자라길" 덕담
전통놀이 즐기며 한국문화 체험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갑진년 첫 자비나눔 대상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었다. 민족 최대명절이라 불리는 설을 앞두고 스님과 다문화가족의 만남에 점차 옅어지는 명절 고유문화도 다시 살아났다.

진우 스님은 2월 6일 오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종로구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과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특수·전문지원교사를 격려한 진우 스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문한 것. 여기에는 총무원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동참했다.

스님과의 만남에는 △ 알리바 올가 씨(러시아 출신)와 아들 신성진(9) 군 △아마도바 라힐 씨(아제르바이잔 출신)와 딸 이아린(3) 양 △응우옌티리(베트남 출신) 씨와 딸 강나경(7) 양 △쭈티섬(베트남 출신) 씨와 딸 최선영(5) 양 △스윈(중국 출신) 씨와 딸 심혜주(12) 양 △주금령(중국 출신) 씨와 아들 이금호(13) 군이 함께했다.

센터에 도착한 진우 스님은 밝은 얼굴로 다문화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미리 준비한 설빔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어머니들에게도 별도의 선물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세계화되고 있다.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게 불교 정신인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대표한 신성진 군에게 설빔을 건네며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군은 "예전에 한 번 입어봤다"며 수줍은 얼굴로 화답했다. 이어 아이들은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진우 스님에게 세배를 했다. 이에 스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세뱃돈을 나눠주며 "건강하고 즐겁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라"고 덕담했다.

세배 이후에는 스님과 다문화가족이 만두를 빚으며 명절 음식 만들기를 체험했다. "직접 빚은 만두를 각자 먹는다"는 사회자의 안내에 만두를 빚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주먹밥 모양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장인의 손길처럼 아름답게 빚어낸 만두는 떡과 함께 채수와 사골국물에 담겨 떡만둣국으로 탄생했다.

떡만둣국이 만들어질 사이, 진우 스님과 다문화가족은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투호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대형 윷을 하나씩 나눠 들고 하늘 높이 던지며 즐긴 윷놀이로 센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어진 떡국 공양에선 아이들이 한국어가 아닌 엄마 나라의 언어로 새해 인사를 전하며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20년 전 러시아 시베리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했다는 올가 씨는 "서강대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3개월마다 MT를 절로 갔다.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템플스테이도 체험했다"며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센터 덕분에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가 씨 아들 신 군도 "오늘 행사가 너무 재밌었다. 특히 금호 형이랑 제일 친해졌다"며 스님과 보낸 시간을 즐거워했다.

한편 종로구가족센터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된 가족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2006년 개소 이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종로구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와 통번역서비스, 부모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순례기도 안내

- 열암곡 마애부처님 순례기도, 마음의 평화 ·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

■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기도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순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길이며, 희망의 미래불교를 위한 초석을 놓는 불사입니다.

■ 매일 사시에 기도법사 스님이 천일기도 및 동참자 축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스님과 불자들의 순례기도를 통해 불교중흥, 국운융창의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순례 안내 : 사찰 또는 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및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홍보자료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또는 해설사가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7-0883 (조계종 미래본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접수 안내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 • 선우스님 • 여진스님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또는 아름다운 동행
다라니기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시



열암곡 순례 정보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새 패러다임으로 남북관계 전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월 6일 기자간담회

통일의식 확산 등 사업 발표
3월 남북 평화·화합 기원법회
108평화통일도량 협약 목표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남북불교 교류는 급변하는 정세로 예측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없는 길을 만들어 가고 없어진 길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엄혹한 이 시기 민추본의 사명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상황을 전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사진)이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태효 스님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민족적 특수관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30년간 교류 협력이 지속됐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분단의 역사와 지금까지의 교류 경험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뒤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민추본은 대북 인식 전환과 통일의식 확산에 주력한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대화 재개 발원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기원법회는 3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쟁 반대 평화통일기원 다라니기도, 전쟁 희생자 추모 위령 공연 등을 진행한다.



태효 스님은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불자들의 대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불교계 통일의식 확산에 매진하겠다”며 “기원법회를 통해 전쟁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남북이 대화로써 평화로 나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걷기’를 활용한 평화통일 의식 제고에도 나선다. 남북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이나 동서 횡단 트레킹 코스 등에서 명상프로그램과 접목한 걷기 행사를 열고 남북 화해를 기원한다. 이는 접경지역 지자체와도 연계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며 연속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및 현장 순례, 월례 강좌 등 민추본 정기 교육과 남불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을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미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불교계 대북 통일역량도 강화한다.

남북관계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교류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북한 불교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기술 내용과 국내 현황을 사전 조사할 계획이며, 통일 관련 제단체와 연대로 대북 정세에 적극 대응,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및 통일사업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직 활성화에도 힘 쏟는다. 2024년 중으로 평화통일도량 108개 사찰과 협약을 완료하고 기금 확보와 활동 영역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도량은 2021년 3월 제1호 협약식을 시작으로 현재 76개 도량과 협약을 맺은 상태로, 향후 지역 사찰들과 적극 협의해 조속히 늘려갈 예정이다.

불자들의 참여 확산을 위한 신규 지역본부 출범도 추진한다. 임기가 만료된 강원지역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을 재임명하는 것은 물론 제주본부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태효 스님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추본은 종단의 남북 관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새기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염불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급 사찰문화해설사 배출 ‘활동 기대’

대불청 심화과정 30명 수료
전문해설 기술 습득에 방점
2급 합격자만 총 800여 명
1급부터 활동비 지원 계획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과 장정화 대불청 회장, 사찰문화해설사 1급 수료생들.

지난 2020년부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1급 합격자를 처음으로 배출하며 올바른 불교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2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 사찰문화해설사 심화과정(1급)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과 강원,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1급 교육과정에는 총 48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30명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급 심화과정은 일반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사찰 현장에서의 대응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해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불청은 양성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800여 명에 달하는 2급 자격 사찰문화해설사를 배출한 바 있다.

장정화 중앙회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사찰문화해설사 자격시험이 집행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얼마 전 이사회에서 사찰문화해설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대불청 차원에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하고자 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는 자체적인 심사위원이 아닌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전문적인 교수님을 모셔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불청의 사찰문화해설사는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나 향토문화해설사들이 사찰을 안내하며 잘못된 불교 지식을 전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껴 기획한 교육사업이다. 대부분의 해설사들이 종교 공간임에도 사찰 역사나 문화재에 대한 지식만 설명하거나 구전되는 설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사례도 많았다.

수료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문화재 관련 인식수준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한다”며 “타종교인이 사찰 문화에 큰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노력과 인연이 소중하다”고 축사했다.

수료식에선 정동수 씨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인 자원봉사상을, 최고득점자인 김병도 씨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상을 수상했다. 대불청은 1급 자격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교구발전 진력”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당선
총무원장 임명장 수여식 거쳐
3월 중순부터 4년 임기 시작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지현 스님〈사진〉이 당선 후 교구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현 스님은 2월 6일 쌍계사에서 열린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후보에 당선됐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12명 중 65명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총무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단독 입후보로 경선 없이 당선된 지현 스님은 산중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가 주석한 방장실을 추모관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방장) 큰스님께서 지내셨던 방장실 내부 모습은 유지한 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추모관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박물관과 설선당, 정묵당 등 여러 불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현 주지스님(영담 스님)을 회주로 모셔서 기존에 추진해온 불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쌍계사 발전을 위해 화합대중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없이 교구도 발전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현 스님은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수계하고 봉암사 수선안거 이래 전문선원 총 22안거를 성만했다. 진주 보광사 주지를 지내고 쌍계사 교무·포교·사회·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천 평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10명 신규 위촉

2월 5일 위촉식…임기 3년
대승불교 · 선불교 등 분야에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새로 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들.

승가교육 발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아사리가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불기2568(2024)년도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진행했다. 교육원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학위논문 및 과정, 연구실정, 교육연구 활동 경력, 연구계획, 교육연구자로서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규 교육아사리 10명을 선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육아사리는 대승불교 분야에 법장 스님(위덕대 철학박사, 비구니), 수완 스님(금강대 박사, 비구니), 혜향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선불교 분야에 돈각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무각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응용불교 분야에 윤성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비구니), 현각 스님(미국 서래대 철학박사, 비구니), 선효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 비구니), 한문불전 분야에 대연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성주 스님(동국대 박사수료)이다.

임기가 만료된 교육아사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대승불교 분야의 경완 스님(고려대 중어중문 박사, 비구니), 법지 스님(중국 남경대 박사), 향산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문학박사), 정천 스님(동국대 박사수료), 금강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혜인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비구니), 초연 스님(경북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초기불교 분야의 현암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선불교 분야의 탄공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철학박사), 정도 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등 10명을 재위촉했다.

김내영 기자



제19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 성료…“꿈나무 응원”

2월 4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서 개최

횡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유망주 선수에 훈련 지원금 수여
호산 스님 “선수 위해 기도” 격려

제19회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집행위원장 호산 스님)가 2월 4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최연소 8세부터 다양한 연령층에서 80여 명이 동참,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사)이웃을돕는사람들과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후원하는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장수 스노보드대회다. 스포츠를 통한 불교문화를 알리고 스노보드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의 주도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달마배 출신으로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채운 선수가 대회장에 참석, 후배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80여 명 중 예선을 거쳐 25명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다. 선수들은 본선 진출자답게 고난도 점프와 회전 등 실력을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대회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이수오 군과 최서우 양이 초중등부, 이광기 씨와 권선우 씨가 고등대학생일반부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달마오픈 챔피언십 집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스노보드 꿈나무들이 달마오픈을 통해 선배들과 인연을 맺고, 응원과 후원 속에서 실력을 늘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불교계와 스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대회 집행위원장 호산 스님은 대회 우수자들을 시상하고 스노보드 꿈나무를 응원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실력을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이끌어온 호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달마배 출신 선수들이 각종 스노보드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이라면서 “더 큰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계종도 더욱 관심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무헌 대한스키협회 부회장도 달마배 스노보드대회에 대해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여 년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회를 이끌고 있는 호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가 유소년 스노보드 유망주 발굴과 전법활동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이날 시상식에서는 초중등부 유망주 선수 2명에게 각각 훈련 지원금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훈련 지원금 수여자로 선정된 이수오 군(13)은 “앞으로 지도자인 아버지의 지도 아래 열심히 훈련해 형처럼 국가대표도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수오 군의 형 이지오 군은 국가대표로, 2023 스위스 내셔널 주니어 챔피언십 우승자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상금 27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협찬품이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올해 처음 참가한 일본 청소년 선수들에게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아차상과 최고령(62세) 최연소(8세) 특별상 등 다양한 시상이 이어졌다.

특별 동참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채운 선수는 “호산 스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달마배 스노보드 출전 이후 기량을 높여 세계랭킹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다”면서 “대회 성장과 함께 선수들도 기량을 높여 한국이 스노보드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경기소년소녀합창단과 상월비보이단 이에이트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추진

묘공학술상·장학생 공모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2024년 불교 학술 진흥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7회 묘공학술상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 자격은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다.

제6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이면 응모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한마음연구〉에 수록될 원고도 모집한다. 투고 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세월호10주기위, 진우스님에 명예위원장 요청

위원회 공동대표단 예방
7대 종교 수장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월호 사고 10주년을 맞아 구성된 세월호10주기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기)로부터 명예위원장직을 요청받았다.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세월호10주기위원회 공동대표단의 예방에서다. 예방자는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명, 4·16재단 김광준 이사장,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목사와 김선우 사무처장이다.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과 부위원장 고금 스님이 배석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먼저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해온 조계종과 사노위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스님들의 기도가 많은 위로가 됐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세월호10주기위원회는 앞으로의 10년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월호10주기위원회가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명예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진상규명과 사후 처리에 대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유가족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승렬 목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계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비를 말씀하는 조계종에 감사하다”며 진우 스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10주년을 맞아 더 이상 참사가 정쟁화되지 않도록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10주기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7대 종교 수장들을 모시고 싶다”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인 진우 스님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곧 열릴 KCRP 회의에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운영위원장은 세월호10주기위원회가 추진할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기억과 추모의 공간 재정비 및 추모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를 위한 연대 활동 등 주요 활동사업에 불교계가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해주길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사회부를 통해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연예인전법단, 서울 종로 전법도량 개소

2월 6일 개소식 전법 진력 다짐
진미령 등 연예인 30여 명 참석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이 서울 조계사 인근에 종로사무소를 열고 부처님 법 전하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2월 6일 서울 조계사 맞은편 건물에서 종로사무소 개소식을 봉행했다.

개소식에서 진미령 가수분과위 부회장은 연예인전법단을 대표해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연예인전법단은 △종단 행사 참여 △불교행사 기획 △승보공양 △연예인전법단 연말 시상식 △스님 건강관리 힐링캠프 △불자연예인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장학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 진미령 부회장은 “종로사무소가 부처님 법 전하는 연예인전법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종로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30여명의 연예인들은 전법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난 것이 큰 행복인만큼 이를 나누기 위해 연예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 신도국장 자경 스님은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주는 연예인들을 보니 불교 미래가 밝다”면서 “종로 사무실을 사랑방 삼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전법단 자문위원장이기도 한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도 “연예인들은 움직이는 자체가 보시”라면서 “연예인 불자들과 포교현장에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사무소는 조계사 맞은편(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8-1)에 위치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입학 안내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포교원 인가를 받은 전국 사찰의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시어 수승한 불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불교대학을 안내 해드리오니 신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09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금강선원불교대학 02-445-8484
길상사불교대학 02-3672-0036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디지털불교대학 070-8680-9288
법련불교대학 02-733-5322
봉은불교대학 02-3218-4821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삼보불교대학 02-352-6406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우담바라불교대학 02-3411-8104
조계사불교대학 02-768-860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경기
관음사수자타불교대학 031-533-0741
금강불교대학 02-898-8200
김포불교대학 031-980-7753
묘적사불교대학 031-576-0784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보광사불교대학 031-948-7701
보문선원불교대학 031-401-2540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031-252-1080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봉녕사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9-1950
봉영사불교대학 031-571-0555
불국산 연화불교대학 031-840-0388
소림사불교대학 032-612-5900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
용주사불교대학 031-221-2324
031-234-0040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정토사불교대학 031-723-9797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48
회암사불교대학 031-866-0355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34-9930
영응사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인천명상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025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033-635-0106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법웅사불교대학 033-742-2701
월인불교대학 033-436-6611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개심사불교대학 041-688-2256
내포불교대학 041-662-7717
마곡사불교대학 041-841-6221
보문사불교대학 041-545-6531
서광불교대학 041-664-2002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89
영랑사불교대학 041-353-8053
영평사불교대학 044-854-1854

대전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042-471-5547
수덕사대전불교대학 042-222-1159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3-3615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청수사보현불교대학 043-218-9995
청주불교문화대학 043-256-6254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부산
고심정사불교대학 051-464-8450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로터스불교대학 051-853-8539
마에뜨리아불교대학 051-271-2774
발원사어셉불교대학 051-405-2326
범어사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선암사나란다불교대학 051-803-7573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051-851-3355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49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1-6640
대구불광불교대학 053-656-6766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성화사불교대학 053-623-8334
용연사불교대학 053-616-8847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2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문경불교대학 054-552-9336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불국사불교대학 054-746-2211
상주불교대학 054-535-2881
아난다불교대학 054-247-7207
예천불교대학 054-654-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지장사불교대학 054-437-2589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8,9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43-1795
관룡사불교대학 055-521-1747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금강사불교대학 055-636-8634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도성암불교대학 055-533-2073
동림불교대학 055-325-4008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비사벌불교대학 055-533-2295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쌍계사진감불교대학 055-883-1901~2
안국사불교대학 055-2551080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율하선원불교대학 055-321-0772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2-7182
통도사전법회관불교대학 055-387-0108
해인사불교문화대학 055-934-3110
해인사함양불교대학 055-963-2471

전남
강진불교대학 061-434-0202
목포불교대학 061-244-1489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완도불교문화대학 061-554-2634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061-534-3355
화엄사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광주
고불총림 광주 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062-234-6601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8
선덕사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전북
군산불교대학 063-462-5366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선운사불교대학 063-561-1422
수현불교대학 063-224-4441
이리불교대학 063-842-6652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법화사불교상담대학 064-738-5225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제주관음사불교대학 064-724-6830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포교 → 신도등록 및 교육(불교대학주소록) 에서도 검색이 가능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염불공양 공덕, 인재불사로 회향

불교TV염불공양회, 고교 · 대학생에 장학금 수여

고교생 10명·대학생 7명 대상
2월 2일 기금 1200만원 전달
25년간 약 2억5000만원 지원
"무주상보시 실천 계속 앞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염불공양을 올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TV염불공양회가 명절을 앞두고 인재불사에 나서 훈훈함을 선사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는 2월 2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7명에게 각 100만원 총 1200만원이 주어졌다. 전달식에는 하정선 회장, 안상희 부회장, 강지원 감사, 윤정희 재무감사를 비롯한 회원 40명과 장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하정선 회장은 "오늘 학생들을 만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감이 든다. 장학금을 수여하며 수많은 학생을 만나왔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인사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노력해 의대에 가고 결혼해 병원장이 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보람이 되고 십시일반 회원들의 성금이 더욱 공덕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유정은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불교TV염불공양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생을 대표해 먼저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오늘 장학금은 저희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불제자로서 더욱 정진해 성장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회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아미타 불국정토를 발원하며 1994년 3월 10일에 창립했다. 특히 어둡고 소외된 현장을 방문해 금강경을 독송 염불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25년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사업은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시다림 염불을 요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형편상 망자를 위한 염불 요청도 불가능했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것.

하정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들을 도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고, 이후 25년간 장학사업을 이어가며 전달한 장학금만 2억5000만원이 넘는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동아대학교병원, 시민장례식장, 좋은강안병원, 착한 장례식장 등 여러 병원 및 장례식장에서 시다림 염불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님들의 다비 및 영결식을 방문해 추모의식에도 동참한다. 지난해는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추모의식과 정혜당 지오 스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배하며 〈금강경〉을 적어 올리고 염불공양을 했다.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법사과 졸업식 개최

불교학과 · 법사과 총 52명 졸업
모범적인 학인들 대상 시상식도
문수상에 박보중 · 전현아 · 장기영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42명과 법사과 10명 등 총 52명이 졸업했다.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6회 불교학과 및 제31회 법사과 졸업식'을 진행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42명과 법사과 10명 등 총 5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2월 4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은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신용표·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전법사회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졸업생 등 80여 명이 동참했다.

시상식에서는 1년 동안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학인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최우수상인 문수상은 불교학과 박보중·전현아 학인, 법사과 장기영 학인이 수상했다.

보현상은 불교학과 유미희·박성만 학인, 법사과 이분임 학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음상은 임순덕·문명호 학인, 반야상에는 오성종·오세창 학인, 전법사회장상인 발원상은 이태곤 학인, 총동문회장상인 원융상은 김석철 학인이 각각 수상했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 삼독으로 일어난 업을 모두 마치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따르고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지상의 온 대지를 덮을 수 있는 가죽을 구할 순 없지만 나의 두 발을 덮을 수 있는 가죽만으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임순덕 불자는 "불교대학에 발을 들여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겨우 접하나 했는데 졸업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저희도 이제 불심을 회복하여 '남'이라 내치고 분리하지 않고 '나'라고 내세우지 않는 '동체자비(同體慈悲)'의 삶을 살겠다"고 발원했다.

1988년 설립된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은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불교학과 100명, 불교학과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법사과 50명을 모집한다. 입학식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063)226-7878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계 거룩함, 여법하게 알리겠다"

인터뷰 제6대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자체 수계법회 규모 확대 목표
회원스님과 의사소통에도 주력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통해 거룩한 계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도록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6대 회장으로 선출된 목종 스님이 사실상 임기 첫 해를 맞아 수계의 거룩함을 대중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2월 5일 전화인터뷰에서 "역대 회장스님들과 회원스님들의 뜻을 이어 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엄한 수계의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회원사찰과 신행단체의 참여를 이끈다는 목표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는 전국에서 열리는 수계의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참여 인원도 매회 1500여 명에 달한다. 신행단체를 통해 참여 방법을 확장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계식을 봉행하지 못한 작은 사찰과 계사가 없어 계를 받을 수 없는 신행단체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목종 스님은 내다보고 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 발전을 위해 신도와 회원스님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견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의사소통의 주요 기구로 삼아 발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주 보덕사, 신도회 임원 위촉장 수여

김남규 신도회장 등 회장단에

울주군 가지산 보덕사(주지 효암 스님)가 신도회 임원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사진〉

2월 4일 입춘기도 후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 신도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서범수 국회의원이 신도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효암 스님은 김치자 불자 등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신도회장에 김남규(서경종합건설대표) 불자, 수석부회장에 김동덕 불자 등 15명의 회장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순천 금룡사 극락보전 상량식 봉행

다포계 팔작지붕의 전통식



순천 금룡사(주지 범일 스님)가 2월 4일 경내 극락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능엄경 보호각 이름으로 지어질 극락보전은 총 28평으로, 전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형식의 전통 건물이다. 지난 2023년 11월 4일 착공해 이날 상량식과 함께 아미타삼존불과 불단 등을 조성한 후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주지 범일 스님은 "극락보전 조성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014-38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관등록 번호 26151-00481)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사찰 등록증 및 승려증 갱신 안내


종회의장 청산 태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사찰 등록증 및 승려증을 갱신합니다.

현재의 등록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각 세무서로 공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본종 소속 사찰 및 스님들께서는 2월 말일까지 총무원으로 전화 신청하시어 3월 30일까지 사찰 등록증과 승려증을 갱신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 등록증과 승려증은 3월 30일까지 일괄 갱신합니다. (갱신 비용 일체 없음)


총무원장 樂山 靑巖

귀의 삼보하옵고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一道邁進 하고 계신
각 종단, 종정 예하 원로 큰 스님 사부대중들의
각 발원 원만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阿含經中 七佛通戒〉
아 함 경 중 칠 불 통 계

諸惡莫作 衆善奉行 諸惡을 짓지 말고
제 악 막 작 중 선 봉 행 衆善은 받들어 행하며
自淨其意 是諸佛教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
자 정 기 의 시 제 불 교 이것이 諸佛의 가르침입니다

本宗 宗徒大衆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진합시다.

법 사 단 신 규 등 록 안 내


호법원장 영민 현응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에서는 혜은당 법홍 대종사께서 운영하시던 법사단을 확대하며 추가 신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비 10만원)
등록 절차는 전화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이신 선원, 선방, 명상 센터,법당 등은 사단법인의 제도권에 동참하시어 더욱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 TEL. (052)238-8010 FAX. (052)238-7010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용당내광로 291-2

남인도 특유 생동감 넘치는 불교를 만나다

화제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스투파의 숲' 다섯 장면들

오는 4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

인도 불교미술품 97점 등 선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세워진 남인도 스투파와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오는 4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특별전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남인도 고유의 문화와 불교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남인도 미술 세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 200여 점이 전시된다. 남인도 불교문화유산이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한 '나무와 뱀:인도의 초기 불교미술'의 한국 전시다. 해당 전시에는 인도 데칸고원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남인도 미술이 소개되며 뉴델리국립박물관 등 인도 12개 기관,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이 출품됐다. 이 중에는 발굴된 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유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생명력 가득한 남인도 미술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한국의 특별전은 두 가지 숲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신비의 숲'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 뿌리내린 남인도 고유의 문화에 불교가 스며들면서 이색적인 숲이 탄생한다. 인도인들은 숲속의 정령이 풍요를 가져와 준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와 대지에 깃든 신을 남성형은 약샤, 여성형은 약시라 불렀다. 자연의 정령이던 이들은 불교가 전해지면서 스투파 장식의 조각으로 등장한다. 자연의 정령과 불교의 신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생명의 숲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스투파의 봉분을 형상화한 둥근 원들로 순환의 질서를 형상화한 공간을 연출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숲'이다. 북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는 남인도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문화와 만나 북쪽과 달리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무엇보다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그려진 남인도 스투파의 규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상징과 서사로 이루어진 그의 인생 드라마가 돌 표면에 조각되어 드라마틱한 인도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인도에서 일어난 문화의 흐름과 불교 신앙의 전파가 남인도 고유의 미술에 어떤 자극과 상상력을 제공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연꽃. 기원전 2세기 후반 조성됐다.

남인도 특유 생명력을 만나다

적도에 가까운 남인도는 열대 계절풍 기후로 석가모니가 태어나 자란 북인도에 비해 춥지 않고 사시사철 덥고 습하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풍요롭다. 이는 남인도 불교미술에도 반영됐다. 스투파를 장식한 갓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꽃과 넝쿨이 보인다. 이는 건강한 생명력과 재생을 의미하며, 영원히 반복되는 생명의 윤회를 상징한다.



커다란 그릇을 받쳐 든 약사. 기원전 50년 조성됐다.

풍요의 신을 만나다

전시는 남인도를 다스렸던 사타바하나왕의 안내로 시작된다. 남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제 교역으로 상인과 장인 계급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동전을 쏟아내는 연꽃 모자를 고안할 만큼 유쾌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었고, 남인도 불교는 그들의 후원을 받아 전래 초기부터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사원을 지을 수 있었다. 전시 유물 중 '약사'는 풍요로운 자연의 정령을 의인화한 것이다. 토착 종교와 불교가 만나면서 이들은 다양한 표정을 지닌다.

사리,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파프라와 스투파 출토 사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 아니라 아쇼카왕이 스투파를 증축할 때 더한 보석이다. 하지만 사리와 함께 있기에 사리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제자들은 화장 후 얻은 사리를 8개의 스투파에 나눠 안치했다. 이후 불교에 귀의한 아쇼카왕이 스투파를 열고 진신사리를 꺼내 인도 전역에 8만4천 스투파에 다시 나눠 안치했다. 사리는 인도 남쪽으로 불교와 함께 전해졌다. 그 과정이 담긴 부조들은 인상 깊다. 사리 이운을 하는 코끼리는 신나 보이기까지 한다. 전시된 파프라와 스투파 출토 사리도 눈여겨 볼 성보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는 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와 빈 대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발자국, 그의 가르침을 뜻하는 수레바퀴처럼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스투파 조각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의 존재를 믿게 하는 상징의 힘을 찾아보자. 상징과 은유로 대상을 나타내던 것에서 인간의 형태로 조형화되는 변화의 순간을 이번 특별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빈 자리를 향한 경배.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조성됐다.

생기발랄한 남인도 불교미술 속 佛傳



싯다르타, 머리카락을 자르다. 3세기 말에 조성됐다.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석가모니의 전기인 불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팔상(八相)으로 요약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에서는 더욱 자세한 장면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이 석가모니의 체발(剃髮) 장면이다.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해 먼저 화려한 머리 장식을 자르는 장면은 속세의 쾌락과 권력을 포기하는 순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에 들어서는 무엇보다 귀한 순간이다. 그리하여 불교에서 이 순간을 '축발(祝髮)'이라고도 하듯이 남인도 부조 속 인물들은 모두 축제를 즐기듯이 신난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泰, 불교 상업화 골머리…자정 목소리 확산

스님 부적 · 호신불 영험담 등
민간신앙 판촉물 유통 성행
수행자 이미지 손상 주요인
스님 교육 등 솔선수범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불교의 심각한 상업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인뎁스 뉴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 최근 태국 불교계에서 지나친 상업화를 넘어서 상업화 자체를 추구하는 불교의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제 비영리 뉴스 네트워크인 '인 뎁스 뉴스'는 태국 불교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정리, 보도했다. 인 뎁스 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불교계 내에서 지나친 민간신앙과 결합한 불교의 상업화가 만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잭슨 호주국립대 아시아학 교수는 인 뎁스 뉴스를 통해 "호신불의 형태로 만들어진 다양한 부적과 불교이전의 애니미즘 등에서 전해오는 민간 신앙이 태국에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특히 군부와 보수적인 엘리트 계층에서 이러한 모습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은행이나 대기업 등은 이러한 부적의 생산과 유통을 판촉물로 사용하여 그 유통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호신불과 부적들은 태국의 많은 사찰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태국에서는 민간에 깊게 뿌리박힌 애니미즘이나 힌두교에서 유래한 신앙이 불교와 혼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리에는 힌두교의 신인 브라흐만이나 가네샤를 모신 사당에 불상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다. 또 재가신자들 가운데 특히 수행이 깊고 다양한 기도의 례를 봉행하는 전문 수행자인 '레우시(reusi)'들 역시 이러한 민간신앙을 강화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인 뎁스 뉴스는 "1980년대부터 태국에서는 정통 불교에 속하지 않은 힌두의 신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기존 불교종단들에서도 이것을 수정하려는 노력보다 불교의 신행 중 하나로 용인하고 넘어갔다"고 전했다. 피터 잭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20세기 후반부터 불교를 감독하는 당국의 경각심이 약해졌고, 태국 불교계 내에서도 성적, 재정적 스캔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출가 수행자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중심의 경제 발전과 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관행의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태국을 넘어 인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행이 높은 스님에게 부적이나 호신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등의 영험담이 퍼지면서 소위 신통을 가진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물건들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인 뎁스 뉴스는 "여기에 더해 현지에서는 이러한 스님들 가운데 이미 입적한 스님들을 마치 신과 같이 신격화하며, 영매를 통해 이미 입적한 스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를 추구하는 것을 불교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넘어서 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습은 불교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예경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결코 부와 명예를 부르는 부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스님들부터 이것에 대한 교육에 나서야 한다"며 승단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美 불교국제단, 가자지구 구호성금

팔레스타인 피란민에 식량꾸러미 전달 예정



식료품, 물, 응급 의료용품을 실은 구호트럭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 사진출처=유엔 뉴스

미국 불교국제구호단이 가자지구 분쟁으로 기근에 빠진 주민의 식량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1월 2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국 불교국제구호단체 BGR(Buddy Global Relief)의 가자지구 분쟁 피해자들을 위한 식량 구호 성금 전달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및 봉쇄정책으로 물과 식량 공급이 차단돼 가자 주민 57만명이 대규모 기아에 직면했다. 신디 메케인 유엔 사무총장은 "아주 적은 분량의 구호품이 한정된 통행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피란민 모두를 돕기에는 역부족이다.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아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며 유엔 회원국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불교국제구호단 보디 스님은 "가자지구 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만달러(한화 약 6700만원)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에 전달돼 가자 피란민들에게 밀가루, 강화 비스킷, 따뜻한 식사,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보충식 등을 담은 식량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가자지구 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국제구호단 데이비드 브라운 부회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 죽음과 상실을 경험했다"면서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려면 먼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 평등심을 가져야한다'고 전하셨다"면서 "불교국제구호단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피란민들이 직면한 상처와 굶주림 등의 피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사찰 내 비구니스님 성폭행 문제 불거져

"은사에게 정신적 지배 당했다"
에이쵸 스님 종단에 멸빈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는 에이쵸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일본 천태종의 한 사찰에서 약 14년에 걸쳐 은사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받아온 한 비구니스님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비구니스님은 자신을 성폭행한 은사스님과, 이 스님을 소개한 대아사리의 승적을 멸빈조치 해줄 것을 일본 천태종에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1월 31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시코쿠에 거주하는 천태종 소속 비구니 에이쵸 스님은 자신의 법적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지난 1월 31일 오전 도쿄도 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대아사리에 대한 존경심을 이용당해 오랜 기간 성적인 피해와 협박이라는 폭력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천태종 종무청에 이 스님과 이를 은폐하려 한 대아사리의 승적을 멸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쵸 스님은 반복된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에이쵸 스님의 변호사는 "스님은 지난 2009년 10월 은사스님의 호출에 불려간 절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그후에도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되어 반복적인 가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에이쵸 스님은 조부가 천태종 스님이었던 것에서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를 부탁하러 만난 대아사리에게서 현재의 은사를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대아사리는 "당시 그를 자신의 상수제자로 소개하며 그 스님의 절을 다니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대아사리는 현재 일본 천태종에서 단 6명뿐인 최고위 법계로, 종단 안팎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에이쵸 스님은 "은사에게서 받은 피해를 대승정에 상담했지만, 그때마다 은사를 따르도록 지시했고 '이 일이 공적으로 밝혀지면 곤란하다'며 되돌려 보냈다. 종단도 대아사리의 지위에 눈치를 보고 지금껏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의 법명과 사연을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여겨 이 자리에 나섰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미 지난 2019년 은사에 대해 성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에이쵸 스님의 기자회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은사스님은 언론의 취재에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아사리 역시 "(상수제자로 믿었던) 그 스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질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멸빈 요청을 받은 일본 천태종 종무청은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또 사찰 대상 범죄…절도 사전 계획 추정

절도 사건에 사원 불안감 증폭



사원에 무단 침입한 괴한과 차량이 사원 보안 카메라에 녹화됐다. 사진출처=왓 암파완 사원

미국에서 연이은 사찰 대상 강도·절도 범죄가 일어나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미국 테네시 주 방송국 'WKRN'은 태국계 사찰 무단 침입 피해 소식을 전했다.

머프리즈버러에 위치한 왓 암파완 사원 요사채에 괴한이 침입했다. 사원이 제공한 보안 영상에는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괴한 6명이 차량에서 내려 요사채로 침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약 4분 후 사찰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을 마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왓 암파완 사원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왓 암파완 사원에 침입한 6인조는 우리를 절도 목표로 삼아 사전 조사를 온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각 주 경찰은 연이은 사찰 대상 범죄로 FBI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FBI 윌리엄스 요원은 "FBI는 성전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며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왓 암파완 사원에서 약 50km 떨어진 파드마삼바바 사원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김민재 객원기자

2024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6기 신입생 모집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가한 개방형 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14년도에 개원한 본원은 2024학년도 제6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3급 승가고시를 앞두고 있거나 재교육을 통해 불전 · 선전에 대해 심층적 전문 연구를 희망하는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한역불전을 바탕으로 수학하고 연찬하는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불교 사상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여 지혜로운 세상을 가꾸고자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환영합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문의 : 010-9473-2849 (간사 진상스님)

모집요강
- 모집인원 : 개방형 (통학) ○○명
- 지원자격 :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 2매
- 모집일정
  - 접 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24년 3월 2일(수)
  - 전 형 방 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 / 면접: 3월 4일(월) 오후 3시
  - 접 수 방 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 록 금 : 1학기당 70만원 / 재수강(본원 졸업생에 한함) 30만원
  - 입학 및 개강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2시

특 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제도 : 대학원생 전원 2년에 총 2회 지급
③ 청강제도 : 본원 졸업생이 아닐 경우(비구.비구니) 한 과목당 40만원

교육과정 (2년 4학기)
- 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8시

	학기	교과목
1학년	1	아함경 I, 한국불교사, 한문기초문법 및 서장 I
	2	아함경 II, 대승기신론 I, 서장 II
2학년	1	대방광여래장경, 보조법어, 선요
	2	유가사지론 사소성지, 대승기신론 II, 화엄오교장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7~2/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4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5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정기인상(23.03.03)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도표로읽는경전입문:방대한팔만대장경의세계가도표로한눈에들어온다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8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9	불자의마음가짐과수행법	일타스님	효림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진정 변하고 싶다면 '명상' 하세요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오상목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故혜봉 오상목 법사가 남긴 저작
알아치림, 염불 등 5가지 수행법
문답 형식으로 간결·상세히 설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혜봉 오상목은… 1956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으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조계사 학생회와 대학생회 지도법사, 1989년 정토포교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서암 큰스님에게 보살계와 무자(無子) 화두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동남아를 다니면서 여러 수행법들을 공부했으며, 여러 해 동안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 수행 정진했다. 1994년부터 정토회 문경수련원의 지도법사로 나눔의 장, 진언 명상, 염불 명상, 관법 명상 수련을 지도했다. 1998년 서울 방배동에 명상 아카데미를, 2000년 사단법인 밝은 세상을 설립하고 인도로 건너가 암틴 라마의 회상에서 대승수행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2017년 서울 홍제동에 행복수업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특히 2014년 아남 툽텐 린포체 · 2019년 쟈 낄룽 린포체 방한을 추진해 한국의 많은 이들이 티베트 수행과 법연을 맺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수행을 지도하며 법을 펼치다 2023년 1월 가족과 제자들의 기도 속에 입적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염원하며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과 내부 수행서 〈깨어있는 마음〉 1~4권을 남겼다.

Q: 화가 나고 사람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때 참구나 호흡관을 하면 왜 안 되는지요?

A: 화두 참구나 호흡관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방해하는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서 제거한 다음 화두 참구나 호흡관을 하셔야 화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거나 시비가 일어날 때 화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안으로 돌려서 '이 화는 어디서 나오는가, 무엇이 이렇게 화를 내고 시비하는가' 하면서 정말로 화를 내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간절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참구하면 됩니다. 또한 화가 날 때 호흡관을 하면서 자비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질문에 막힘이 없다. 답이 술술 나온다.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지혜가 담긴 답변으로 현대인들의 고민과 명상에 관한 옳은 방향을 이끌어 준다.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로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며 '국민멘토'가 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비슷하다. 법륜 스님과 함께 초창기 정토회를 함께 일구고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을 쓴 고(故) 혜봉(慧峰) 오상목(행복수업협동조합 전 이사장) 법사다.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는 명상을 전달할 때, 저자가 주로 사용한 방법이 '문답법'이다. 질문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상담하듯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도 차근차근 끈기있게 답변한다.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졸음과 통증 갖가지 생각 등으로 명상이 잘되지 않을 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친구에 대한 미움으로 화가 날 때, 이성에 대한 원인 모를 증오로 괴로울 때 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저자의 답변은 묵은 체증이 내려다가듯 속이 다 시원하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향까지 알려준다.

무릇 부처님도 그리하셨다. 제자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을 내리셨고, 이는 경전이 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는 스스로 깨달음과 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 1990년부터 2023년 작고하기까지 명상을 가르쳐온 저자의 내공은 만만치 않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혜봉 오상목 법사는 1990년 서암 스님에게 보살계와 무자(無子) 화두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정토회 문경수련원의 지도법사로 나눔의 장·진언 명상·염불 명상·관법 명상을 지도했으며, 명상 아카데미와 (사)밝은세상, 행복수업협동조합을 설립해 몸과 마음이 괴로운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알려왔다.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인도로 건너가 암틴 라마의 회상에서 대승수행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4년 아남 툽텐 린포체, 2019년 쟈 낄룽 린포체 방한을 추진해 한국의 많은 이들이 티베트 수행과 인연을 맺도록 도왔다. 상좌부와 대승, 금상승과 선(禪)을 두루 수행하고 회통한 뒤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명상을 지도한 것. 그 명상의 정수를 이 책에 옮겼다.

저자와 질문자 간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된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명상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 응답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깨달음과 행복으로 향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독자 개개인이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알아차림, 진언, 절, 염불, 화두 이렇게 5가지 명상법으로 분류돼 있다. 뿐만 아니라 5가지 명상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명상으로 행복을 발견한 이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깊은 공감을 끌어낸다. 그래서 문답을 따라가다 보면 기초부터 시작해 행복에 이르는 심화 과정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명상에 젖어들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명상에 입문하는 모든 이에게 훌륭한 안내서로서 추천할 만하다.

근현대 오대산 두 선지식 한암·탄허 스님을 만나다



근현대 오대산의 고승 한암과 탄허
이원석 지음
민족사
3만5000원

근현대 오대산의 고승인 한암 스님(漢岩重遠, 1876~1951)과 탄허 스님(呑虛宅成, 1913~1983)의 생애와 삶, 사상에 대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근현대 오대산 고승 한암과 탄허〉는 '민족사 학술총서' 78번째로 저자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가 지난 10년간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오대산의 고승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연구해 발표한 10편의 논문을 수정, 보완해 묶은 것이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엄격한 사료의 검토와 논거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역사학적 측면을 강조, 두 고승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주목한 것은 두 스님 모두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스승(한암)과 제자(탄허)사이였으며, 학술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탄허 스님이 21세까지 유교의 진수를 터득하고 도가를 섭렵하며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다 연결된 것이 한암 스님이었다.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과 3년에 걸친 편지 왕래 끝에 1934년에 입산 출가했고, 17년간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 아래에서 〈화엄경〉을 비롯한 내·외전 일체를 공부했다. 탄허 스님의 삼교합일론은 한암 스님과 무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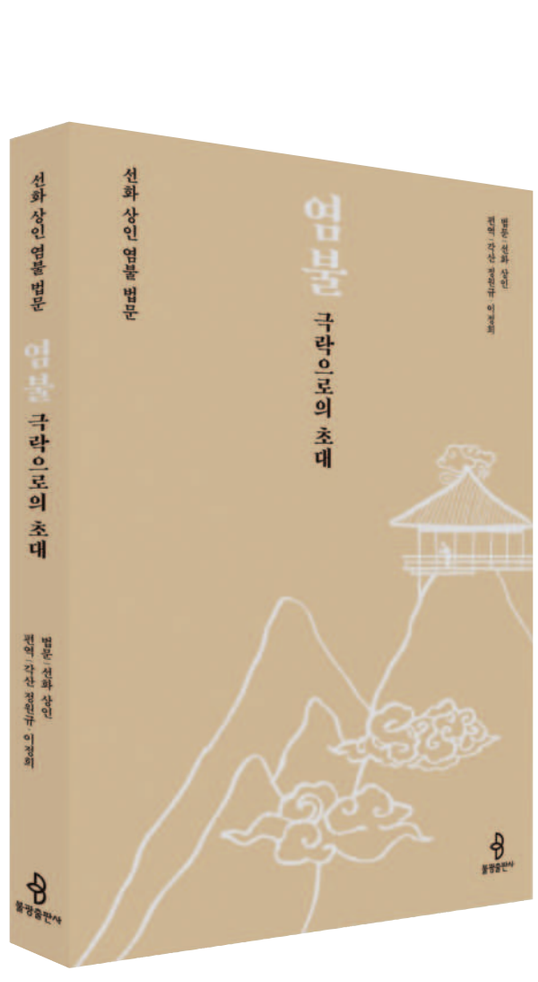
스승 한암 스님은 돈오점수의 참선 중시와 선교(禪敎) 합일을 추구했다. 1926~1951년까지 두문불출, 오대산을 나가지 않았으며, 국군의 상원사 소각을 저지한 고승이다. 그간의 한암선사에 대한 연구가 좀 피상적이었다면 이원석 교수의 연구는 매우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암 스님에 대한 출가 연도는 22세 설이었으나, 저자는 치밀한 자료 고증을 거쳐서 출가 연도를 19세라고 논증했고(1부-1, 한암의 출가 과정과 구도적 출가관), 또 한암 스님이 봉은사에서 상원사로 이거(移居)한 시기에 대해서도 종전의 1925년 설보다는 한 해 뒤인 1926년 봄임을 고증했다. 그 밖에도 종래의 설에 대한 많은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얻어진 고찰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암 연구의 필독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자 탄허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유불도(儒佛道) 삼교와 동양학에 능통했으며 불교경전 번역과 인재 양성에 생애를 바친 고승이다. 생애의 많은 시간을 승가 교육에 매진했으며 특히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썼다. 또 깊은 예지와 통찰력으로 한국의 미래를 조망했는데 장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 고승은 오대산을 상징하며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학술사나 유학과 불교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탄허 스님의 삼교합일론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또한 탄허 스님의 학술과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교적 시각만으로 불가능하고, 도가와 함께 유가적 접근도 필요하였고 탄허 스님의 삼교합일과 회통론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은사인 한암 스님에 대한 연구로 이행되었다.

이 책은 두 고승에 대한 많은 연구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고승의 생애 고증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자 이원석 교수가 인물사를 전공하는 학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연구자의 전공답게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두 고승의 생애를 고증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선화 상인 법문
각산 정원규·이정희 편역
288쪽 | 17,000원

극락왕생의 가장 수승한 길이자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락으로 바꾸는
불가사의한 힘, 염불!

시대의 큰 스승 선화 상인이 권하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마땅한 수행

불교가 낯선 미국인들에게조차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한
중국 위앙종 9대 법손 선화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염불 법문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감동과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선지식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은 보석보다도 빛을 발합니다.
이 책이 성불 학교 극락의 문으로 들어가는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 광우 스님 (BTN불교TV 〈광우 스님의 소나무〉 진행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❹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한줄 요약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은 불교가 공인된 이후 7세기 초반 산 정상에 최초로 조성된 불국정토다. 이제 전 세계 유일한 산 전체를 불국정토로 꾸며놓은 경주 남산으로 가보자. 단석산 정상의 바위에서 시작된 불국정토가 남산의 산 전체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단석산, 경주 남산 불국정토의 시작점

신라에 불교 공인된 7세기 초반
산 정상, 불국토로 만든 첫 사례
단석산 마애불상군, 남산 이어져


사진①
단석산의 향로를 든 인물상.


사진②
단석산 마애불상군 관세음보살 정면.


사진③
단석산 마애불상군 미륵본존불.


사진④
다양한 수인의 세 부처님과 반사유상.

단석산은 김유신이 화랑으로 있을 때 정상 부근의 바위를 칼로 내려쳐서 갈라놓았다는 유래가 전한다. 뭐 이 정도는 나중에 알았던 유래일 뿐 관심사는 아니었다. 내가 단석산에 오른 이유는 아주 특별한, 지금은 사라진 불교 예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중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향로의 모습 때문이다.

마애불상군은 바위 면을 깨거나 파서 불상과 보살상 등을 새겨 놓은 곳을 말한다. 이 중 신선사 마애불상군에는 신도가 부처님을 뵈러 갈 때 향로를 들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지금 한국불교 예식에서는 사라진 향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군위 인각사 부도탑 자리 지하에서 발견된 향로를 보면 휴대용 향로의 원형을 알 수 있다.(사진①)

마애불상군 북쪽 면에 두 인물상이 있다. 두 인물상을 처음 볼 때 어릴 적 만화에서 보았던 스머프가 생각났다. 머리에는 고깔모자를 쓰고 바지는 펑퍼짐하게 입고 있다. 특히나 신발은 앞 코가 뾰족하게 솟아난 것이 완전 스머프의 모습 같았다. '신라 남성들은 바지를 이렇게 입었을까?' 아하 하며 예전 경주 국립박물관의 이차돈 순교비가 생각났다. 순교비의 이차돈도 항아리 바지 같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라인들은 스머프 모자에 항아리 바지를 입고 있었구나. 상상해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다. 두 인물상 중 오른쪽 앞의 인물이 더 큰 것으로 보아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앞의 인물이 휴대용 향로를 들고 있고, 뒤의 인물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신성한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성지순례를 다닐 때 맨 앞에 스님이 서서 휴대용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을 참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혹시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베트남의 절에 가면 한국과 다른 점을 본 적이 있는가 싶다. 바로 법당 앞마당에 있는 큰 향로다. 우리 한국의 절은 법당 안의 부처님 불단 앞에만 향로가 있다. 그러나 한국 외의 모든 나라 사찰들은 법당 밖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큰 향로가 마련돼 있다. 왜 우리는 마당의 향로가 사라졌을까? 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우리 한국의 사찰에도 법당 밖에 큰 향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금 한국 사찰에 법당 밖의 향로가 사라진 이유는 조선시대에 돈 되는 청동이나 놋쇠로 만든 큰 향로를 권력자들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석탑이나 석등 주위의 배례석(拜禮石)은 향로의 기단 자리로 추정된다. 경남 창령에 있던 인양사에는 신라시대 771년부터 810년까지 40여 년간 불사하던 과정을 적어놓은 비문이 있다. 이 비문에 보면 782년 정례석(頂禮石)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배례나 정례는 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절을 하는 돌이란 지금의 배례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이 예법이다.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향을 먼저 피우고 절을 해야 예법에 맞는 것이다. 즉 불교에서 배례란 향을 피우는 의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배례석이 향로 자리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조선 500년의 숭유억불은 많은 불교문화를 사라지게 했다. 흔적은 남았지만 어떤 법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는 문화재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사찰의 박물관이나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불연이 있다. 분명 가마인데 사람이 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성물을 가마에 얹어 놓고 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떤 법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남아서 전래는 되었지만 알 수 없다.

이러한 것이 또 있다. 사찰의 큰 법당 뒤에 하나씩은 있는 구시이다. 구시는 구유의 사투리라고 한다.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은 댑싸리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하는 송광사의 비싸리구시가 있다. 화엄사에도 길이가 7m나 되는 큰 구시가 있다. 전에는 대웅전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엄사 성보박물관 앞뜰에 있다. 화엄사 구시를 소개하는 글에 정유재란 때 승병에게 밥을 해서 담았던 그릇이라고 전한다. 급한 전쟁기에 여럿이 서거나 앉아서 밥을 빨리 먹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근대에 누군가 상상한 이야기다. 전쟁기에 만든 구시일리가 없다. 만드는 공력에 비해 활용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급하면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구시에 담아서 먹을 이유도 없다.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하던 물건인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고 있다.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용도라고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신선사 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의 탑곡 마애불상군과 더불어 옛 신라인의 신행 생활 전반의 불교문화를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다. 7세기 조성된 신선사 마애불상군은 최초의 석굴 사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전용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찾아보기도 했다. 차를 어찌어찌 세워놓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정말 죽을 둥 살 둥 올랐다. 그런데 내려올 땐 완전 다른 극락세계 입구를 맛보았다. 다시 또 가볼까 싶을 정도로 접근성이 어렵고 힘든 곳이다. 이런 곳에 신라인들은 불국정토를 조성해 놓은 것이다. 다가가기 힘들기에 성스러운 불국정토를 세울 곳으로 생각했을까?

(사진②)마애불상군은 'ㄷ'자 모양이다. 입구는 서쪽이 되고 정면으로 들어서서 보이는 관세음보살님은 동쪽에 새겨져 있다. 보관을 쓰고 있지 않아서 얼핏 보면 부처님이 서 계신 것 같지만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다. 북쪽에는 본존불인 미륵부처님께서 왼손은 밑으로 오른손은 위로 손바닥을 보이는 시무외인과 여법인의 수인을 하고 서 있다. 미륵부처님 정면인 남쪽에는 지장보살 입상이 연화대에 서 있다. 바로 이 지장보살상 근처 조성기에 신선사에 미륵불상과 2구의 보살상을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사진③)

미륵 본존불 왼편 큰 바위의 아래에는 앞서 보았던 두 명의 공양인물상이 새겨져 있고, 두 공양인물상 왼쪽 밑에는 작은 부처님 입상이 새겨져 있다. 공양인물상 바로 위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오른쪽을 향하여 손짓하면서 참배를 온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다. 여기서 손짓에 대한 해석으로 거의 모든 설명들은 본존불인 미륵부처님을 향한다고 쓰여진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옆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께 손짓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성기의 내용을 보았을 때 미륵본존불과 서 있는 두 보살상은 신선사를 창건하면서 조성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렇기에 손짓하는 마애부처님과 앉아있는 반가사유상은 창건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가사유는 다음 세상에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신라인들이 꿈꾸는 불국정토를 이룩해줄 사유하는 미래의 부처님께 삼세의 부처님들이 인도하시는 손짓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사진④)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은 불교가 공인된 이후 7세기 초반 산 정상에 최초로 조성된 불국정토의 세상이다. 불국정토는 부처님과 출가 수행자와 신도의 신행 생활이 펼쳐져 있는 불교문화 전반이며 부처님 세상을 의미한다. 이제 전 세계 유일한 산 전체를 불국정토로 꾸며놓은 경주 남산으로 가보자. 단석산 정상의 바위에서 시작된 불국정토가 남산의 산 전체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차별·억압 넘어선 연대의 힘



이안의
Media In Buddha

㉝ 〈밤에 피는 꽃〉과 〈세작, 매혹된 자들〉



드라마 〈밤에 피는 꽃〉 포스터.

불교는 차별에 반대하는 종교다. 그렇기에 불교는 오래전부터 종교, 성 정체성, 이념 등에 의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행을 펼쳐왔다. 특히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2021년 1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30㎞를 오체투지로 나아가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시대적 상황과 팍팍한 개인의 실존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장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는 〈바람의 화원〉(2008년, SBS), 〈성균관 스캔들〉(2010, KBS) 이래 사극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이 두 드라마와 같이 조선시대, 그것도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남장 여자 이야기는 혜원 신윤복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미인도〉(2008, 감독 전윤수)도 이 무렵에 개봉된 화제작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드라마 〈연인〉 이래 요즈음 사극은 병자호란 이후 시대가 사극에서 주무대가 되고 있다. 〈연인〉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조선이라는 사회의 억압을 돌파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였다면 최근의 〈밤에 피는 꽃〉(2024, MBC)이나 〈세작, 매혹된 자들〉(2024, TVN)은 남장 여자를 등장시켜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에서 돌파해야 할 사회의 병폐들을 그려낸다.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의 콘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까? 어떤 시대가 특정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려내기에 그럴싸한 배경이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고증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재현의 문제가 아니라 되짚어 풀어내는 해석의 문제다. 그 시대에 이미 '인요(人妖, 남자로 변장한 여자나 여자로 행세하는 남자를 이르는 말)'라는 용어가 있었으니 남장 여자도 있었을 것이요, '계간'이니 '비역질' 같은 말도 있었으니 분명 동성애도 그늘진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콘텐츠 시장에서 상업영화나 드라마는 자본을 수십억씩 들여 만들어지는 위험 부담 상당한 상품이다. 그런 만큼 〈미인도〉나 〈바람의 화원〉이 실제의 혜원이나 단원, 정조 대의 조선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문제 삼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차피 영상에서 재현되거나 참조되는 그림들은 실제 작품들 그 자체가 원본이 있는 것이니 만큼 그림의 작품성이나 해석이 큰 문젯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림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그 이야기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다.

하필 두 작품 다 '혜원 신윤복이 사실은 여자였더라면', 그래서 '단원 김홍도와 농밀한 성적 긴장 관계를 맺었더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관객에게 만들어내는 소통의 채널이 되도록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소환하는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넘는 카타르시스를 관객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피는 꽃〉 등 남장 여성 사극
남장 통한 겨룸으로 가부장제 극복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남성으로 위장했을 때는 화원으로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수제자로서 인간적 대우도 받고, 자식으로서 가문의 일원임을 인정도 받지만 위장을 벗고 여성성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신윤복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의 실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여성이 사람대접을 받는 것은 오로지 명예남성으로 처신할 때뿐이라고 새록새록 일깨우고, 자기 안의 여성성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뿐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영화 〈미인도〉가 보고 느끼고 그려낸 것, 그리고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청춘들의 고뇌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여성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미인도〉에서는 혜원(김규리 분)의 입을 빌려 '흔들리고, 사랑하고, 유혹하는 모습이 아름답노라'고 속삭이며 명예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주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남은 신윤복의 미인도와 영화 〈미인도〉, 드라마 〈바람의 화원〉을 경유해서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나 〈세작, 매혹된 자들〉의 여성 주인공들 역시 남장 여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은 〈성균관 스캔들〉이나 〈미인도〉처럼 명예남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여성으로서 발휘할 수 없을 때 남장을 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현한다. 이들의 남장이 시청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까닭은 이 여성들이 남장을 통해 드러내려는 능력과 가능성이 자신의 성장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속환비를 마련하지 못해 억류된 여성들을 구하려는 것이 〈밤에 피는 꽃〉의 여화(이하늬)나 〈세작, 매혹된 자들〉의 희수(신세경)가 남장을 하게 된 계기다. 남성 중심 가부장제 국가가 희생양으로 삼은 여성들을 생과부인 여화나 정쟁으로 아슬아슬한 집안의 딸이 무술로든 바둑으로든 구해내려는 것이 남장의 시작이다.

이들의 무술과 바둑은 '겨루는 일'이다. 겨루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성이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던 시대가 조선시대다. 남장 여자 사극은 긴장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 바탕한다. 남성들이 정쟁과 명분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상황에서 억압당하는 여성들을 능력있는 여성이 구해내기 위해서는 남성의 의복을 걸쳐야 한다는 위장된 성 정체성, 그 위장이 발각되는 순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와 상관없이 가혹하게 처벌되리라는 위기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이들 남장 여성의 드라마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현대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했던 것처럼 타인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며 연대하는 자리이타행이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⑦

1.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타마'는 '최상의 소'라는 뜻이다.
② 출가하기 전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③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왕비이다.
④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라는 뜻이다.
⑤ '석가'는 성(姓)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이라는 뜻이다.

해설 :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양왕비에게서 태어났으며 출가 전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고타마는 성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최상의 소라는 뜻도 있다. 싯다르타는 이름으로 모든 것의 성취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란 뜻으로 석가란 부처님의 성이 아니라 종족(민족)을 말한다.

2. 『대방편불보은경』에서는'그대들은 이제 가되 부처님같이 가야하고, 머무르되 부처님같이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부처님같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② 당면한 현실의 고통보다는 사후의 행복에 관심을 둔다.
③ 편견과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
④ 모든 생명이 저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벗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번뇌를 정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으로 사후가 아니라 현생에서 이미 최상의 행복을 얻으신 분이다. 그럼으로 '부처님같이'에는 사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다.

3. 불교에서는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말한다. 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다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이 존재한다.
②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무수한 부처님이 존재한다.
③ 일체의 병든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부처님은 약사여래부처님이다.
④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부처님이다.
⑤ 깨달음을 이루어 진리와 함께 하면서도 고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분이시다.

해설 : 불교가 창시되던 당시에 주변에 다신교적 문화가 일반적이었으나 부처님의 설법은 기존의 종교와 전통에서 벗어난 전대미문의 가르침이기에 그 배경으로서 다신교를 얘기할 수 없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많은 이유는 다신교의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깨달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인본주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4. 부처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은 일체의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을 끊은 분을 말한다.
②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에 많은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존재이다.
④ 부처님은 한없는 자비심으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고 구원하신 분이다.
⑤ 부처님은 일체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을 아는자[一切智者]이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 진리를 들어 배우고(문), 배운 바를 숙고하고(사), 숙고한 바에 따라 수행하여(수)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 즉 구도의 길이지 부처님의 구원에 의한 것은 아니다.

5.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려있다.
②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③ 인간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④ 인간을 열려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⑤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설 :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성으로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모든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가 인정됨으로 그 존재를 속박하는 결정된 운명은 없다.

정답 : ① ⑤ ② ⑤ ③ ① ④ ④ ⑤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고가구·병풍 3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설치 합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신제품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70,000원
5일초 24개 75,000원
3일초 40개 75,000원
1일초 100개 85,000원
15일초 12개 105,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지상백고좌

봉선사 회주 밀운 부림 대종사

“색불이공 공불이색, 붓다의 오도 본령”

〈色不異空〉 〈空不異色〉



밀운 부림 대종사는… 1954년 3월 15일 경북 영주 초암사 대오(大悟)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경북 영주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부림(部林)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71년 8월 11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증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2년 10월 30일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입실하고 밀운(密耘)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2004년 5월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 받았다. 1967년 봉선사에서 교과를 수료했으며,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삼장법사) 박사,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대학 명예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사(理事) 모두 밝아 제 5·6·7·8·9·10대 조계종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 서울 봉은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법규위원장, 광동학원 이사,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이후 조계종 원로의원과 원로의장, 명예원로의장, 종정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회주로 주석하며 후학 지도와 도량 수호의 지남(指南)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교종(教宗)의 종풍(宗風)과 선종(禪宗)의 선맥(禪脈)이 계승되고 있는 본사이다. 월초 화상(和尙)이 교종판사가 되고 나서 줄곧 주석하시면서 가람을 중수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던 까닭에 봉선사에는 한국의 구마라집이라고 칭송 받는 운허 스님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강백들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교종 본찰의 전통은 한글대장경 318권을 완간한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에게 계승돼 내려왔다. 그렇다고 해서 봉선사 대중이 선종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다. 입산한 이래 여러 해 동안 줄곧 화두만을 참구하며 수행한 명허 스님은 봉선사의 선맥을 대표하는 선승이라고 할 수 있다. 선과 교를 아우르는 봉선사의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행자가 바로 봉선사 회주 밀운(密耘) 부림(部林) 대종사이다.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경 필자는 봉선사 초입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포행(布行)하는 한 노스님을 봤다. 그 노스님은 다름 아닌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돼 있던 밀운 스님이었다. 선 채로 합장 반배한 뒤 내 소개를 하자 밀운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두 시에 뵙기로 했는데 일찍 왔군요.”

구순을 넘긴 세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평소 계행을 잘 닦아온 터라 법체가 꼿꼿하고 강건하였다. 스님을 따라서 올라간 주석처 입구에는 인면(人面) 형상의 괴석(怪石)이 서 있었다. 그 괴석에는 ‘우주일광(宇宙一光)’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밀운 스님은 지팡이를 괴석의 위쪽을 가리켰다.

“이 돌은 납승이 봉선사 뒷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돌을 만져 봐요. ‘우주일광’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서인지 좋은 기운이 돌아요.”

‘우주일광’, 우주의 근본 원리

주석처에 들어선 뒤 밀운 스님은 ‘우주일광’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활안 스님이 BTN불교TV에 인도교단사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는데 활안 스님이 부처님께서 오도(悟道)를 이루신 뒤 녹야원에 당도한 이야기를 설명하더군요. 제자들이 ‘싯다르타의 뒤에 후광이 비춥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 교진여(阿若驕陳如)는 즉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서 제가 활안 스님을 찾아가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활안 스님이 파안대소(破顔大笑)하면서 좋아하더군요.”

밀운 스님은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하지만 6년간 고행하였으나 해탈하지 못해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신 뒤 수자타의 공양을 들고서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다가 어느 새벽 샛별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벽에는 사위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샛별이 떠서 허공의 어둠을 물리치고 여명(黎明)을 밝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다름 아닌 진공묘유의 이치입니다.”

“광자, 원자 등 에너지가 바로 一光
生하지도 滅하지 않는 불변의 근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와 같아
모든 실상이 진공임을 알아야 한다”

밀운 대종사의 말인즉슨, 비유컨대 새벽의 어둠이 진공(眞空)이고, 샛별이 묘유(妙有)라는 것이었다.

“우주 허공이 진공묘유임을 아시고 나니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생로병사가 연기법에 의거해 정집(情執)된 것임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밀운 대종사의 주장에 따르면 부처님 오도의 본령은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제법공상(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 공중무색(空中無色)’ 등 구절은 일종의 부연설명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에 운허 스님께서 봉은사에서 〈능엄경(楞嚴經)〉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하루는 무아(無我)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제가 ‘금을 쪼개서 분해해 아주 작은 입자(쿼크)로 만든다고 해도 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운허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입자(쿼크)가 자성(自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우주일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밀운 스님의 주장은 현대물리학과 합일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의 ‘E=MC2’ 공식을 통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等價性)을 증명했다. 질량은 가시적이니 ‘색’에 해당하고 에너지는 비가시적이니 ‘공’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논리를 통해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제약을 받으면서 공존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 입자는 가시적이니 ‘색’에 해당하고 파동은 비가시적이니 ‘공’에 해당할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양축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주일광’은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필자의 질문에 밀운 스님은 긍정의 표시인 듯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쳤다.

“일광(一光)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광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소립자(素粒子)의 에너지가 모두 일광입니다. 이 일광은 불생불멸(不生不滅), 즉, 생하지도 멸하지 않고, 불구부정(不垢不淨), 즉,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부증불감(不增不減), 즉,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일광이 연기법에 의거해 정집된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 변하여도 이 일광의 근원은 불변하니,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일광은 다시 말해 공성(空性) 내지는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광의 작용이 마음(心)이므로 일광 없는 마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감산 대사는 〈반야심경 오가해 강기〉에서 제법공상(諸法空相)을 진공실상(眞空實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납승도 감산 대사의 탁월한 견해에 공감합니다. 실상이 진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밀운 스님이 역설하는 진공은 불교용어인 동시에 물리학 용어이기도 하다. 물리적 진공이란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 빈틈이 없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1면에 계속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빼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봉선사 회주 밀운 부림 대종사

“僧行僧, 수행자면 수행자답게 행동하라”

10면에 이어

종단 후학들을 위한 당부

持戒는 의무… “계율, 생명처럼 여겨라”

“지계 없는 스님이 보살계 줄 수 있는가”

신년 맞는 불자 위한 덕담

“물은 모든 물고기를 어루만져 주나니

모든 동식물을 돌보는 물처럼 살아라”



밀운 스님이 주석처인 피우정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피우정은 ‘비를 피하는 정자’로 스님은 “인생도 비를 피해 머무는 정자와 같다”고 했다.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만나면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입자와 반입자는 다시 진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입자와 반입자의 생성을 쌍생성, 소멸을 쌍소멸이라고 부른다.

죽은 지렁이라도 풀숲으로 옮겨라

“종단의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말에 밀운 스님은 목이 마른 듯 물을 마시고 나서 입을 뗐다.

“출가자들이 출가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출가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勇猛精進)해야 합니다. 그 수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계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스님이 신도들에게 보살계를 내리고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신도가 따르겠습니까? 진공묘유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굳이 사바세계의 오욕(五慾)에 욕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납승이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이유는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산 지렁이를 보면 풀숲에 옮겨줘야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지렁이를 방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렁이를 봐도 풀숲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지렁이에게 몰려드는 개미들을 밟아죽이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불살생의 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밀운 스님은 포천 5군단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서도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그 본분의 첫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사로 진급해서도 포천 동화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매일같이 참선했다.

하루는 은사인 대오 스님과 동암 스님이 격려차원에서 동화사를 방문했다. 법당에서 동암 스님이 혼잣말을 했다.

“부처님이 시원치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밀운 스님은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 왜 시원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은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님만의 화두가 된 것이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참선하다가 문득 ‘불행불(佛行佛)’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밀운 스님은 동암 스님에게 찾아가 “부처님답게 행하면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에 시원찮은 부처님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암 스님이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후 밀운 스님은 대중에게 ‘불행불(佛行佛) 승행승(僧行僧) 인행인(人行人)’을 역설하고 있다. 부처님답게 행하는 것도, 스님답게 행하는 것도, 사람답게 행하는 것도 각각의 계율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

인생, 비 피하는 정자와 같다

이내 밀운 스님은 이어서 방안에 걸린 붓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붓글씨는 ‘부목은 땔 나무 버리고(負木捨柴) 이 정자에서 비를 피하네(寄避雨亭). 태풍과 천둥소리에도 상관치 않고(不關風雷) 눈 뜨고 잠에 들리라(開眼睡眠)’는 의미였다.

개안수면(開眼睡眠)은 주석처 입구에 걸려 있는 편액이기도 했다. 태풍과 천둥소리에도 상관치 않고 눈 뜨고 잠에 들겠다는 것은 어떠한 시시비비(是是非非)에도 괘념치 않고 관여치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이다.

밀운 스님은 피우정으로 오기 전까지 ‘종단의 부목’이길 자처했다. 이사(理事)에 두루 밝았던 스님이기에 봉은사 소유의 토지 6만6115㎡(2만 평)를 매입할 수 있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영암 스님은 “허공에도 논을 칠 사람”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

불교계 숙원불사였던 경승제도의 초석을 놓은 것도, 전국의 강원들을 승가대학으로 제도화한 것도 밀운 스님이다. 특히, 밀운 스님은 1984년 8월경 총무원 부원장이자 총무부장으로서 당시 종정(성철 대종사)의 재가를 받아 10·27법난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15명의 스님을 사면 복권하는 데 앞장섰다. 스님은 봉선사로 주석처를 옮긴 뒤에는 봉선사 경내에 5000여 평의 크고 작은 연지를 만들고 연꽃을 심었다. ‘종단의 부목’이 땔감을 버리고 피우정에 들었으니 당시 스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된다.

“1988년에는 강북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에 동시에 총무원 현판이 걸렸어요. 당시 납승은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 봉선사로 들어왔어요. 당시 납승은 주석처의 당호를 피우정(避雨亭)이라고 명명하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피우정의 사전적 의미는 ‘비를 피하는 정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잠시 비를 피해 머무는 정자에 지나지 않아요.”

밀운 스님이 수행처를 피우정이라고 지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태풍처럼 몰아치고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눈 뜨고 잠에 드는 수행 끝에 지혜의 꽃을 피우겠다는 자신만의 언약일 것이다.

스님의 법호를 내려준 것은 운허 스님이다. 밀운은 깊은(密) 정진(耘)을 의미할 것이다. 운허 스님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밀운 스님의 주석처에는 수덕사 방장 원담(圓潭)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다.

‘만물과 나의 근원은 다르지 않으니(物我元無異) 삼라만상이 마음의 거울 속에 있다(森羅鏡相中). 우주 전체가 적멸궁이니(十方寂滅宮) 참다운 부처는 멀고 가까운 경계가 없다(眞佛無遠近).’

필자가 글귀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40여 년 전 원담 스님, 고산 스님, 성수 스님, 정무 스님, 선래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홀로 불치사(佛齒寺)에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돼 있는 2층 향실(香室) 앞에서 108배를 올렸어요. 참배를 마치고 좌선에 들었는데 문득 ‘무원근(無遠近)’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무원근은 멀고 가까운 경계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밀운 대종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납승이 느꼈던 뜨거운 법열에 대해 전했더니 원담 스님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밀운 스님 혼자 복 받았네’라면서 기뻐한 뒤 저 게송을 지어주었어요.”

서로 돕는 꽃과 벌처럼…

필자가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밀운 스님은 방벽에 걸려 있는 또 다른 붓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산은 모든 짐승들을 가족처럼 끌어안고(山抱禽獸族), 물은 모든 물고기들을 어루만져 줍니다(水摩魚蟹羣). 새해에는 불자 여러분이 물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물은 식물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키우고 돌보지만, 그 식물과 동물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을 어루만져 주는 물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밀운 스님이 결혼식 주례 때마다 들려주는 말이 있다.

“화소군봉(花召群蜂) 봉락화향(蜂樂花香) 화봉상조(花蜂相助) 종고불변(終古不變).”

꽃은 벌떼를 불러 모으고, 벌은 꽃향기를 좋아하니, 꽃과 벌은 서로 돕기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서로 나빠질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밀운 스님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놈이나 중생의 망상을 일으키는 바로 그놈이 똑같이 나 자신”이라며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내가 생각을 돌이켜 심성을 정화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직인사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자 밀운 스님은 주석처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날이 추우니 주석처로 들어가시라”고 해도 대종사는 지팡이에 법체를 의지한 채 한동안 주석처 앞에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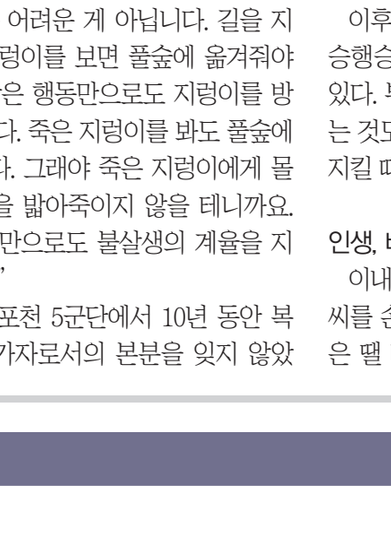
봉선사 산문(山門)에 이르러 뒤돌아서서 운악산을 바라보니 먼 듯 가깝고, 가까운 듯 멀어서 무원근(無遠近)이었다.

유응오 / 작가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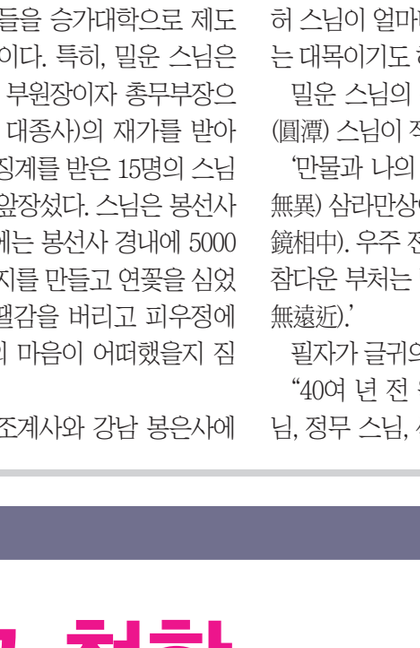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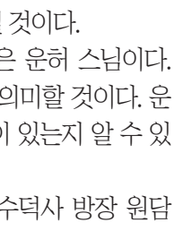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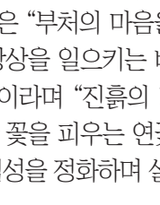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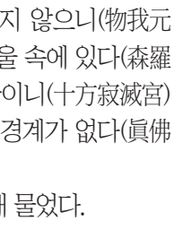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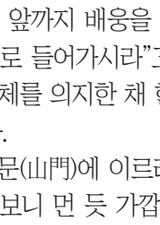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1호 | 12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8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종교종단 연수원 기도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453
- 대지 : 임야 2000평 중 대지 400평 대웅전, 산신각, 기도처, 요사채, 숙소 2차선 도로접 버스주차장 200평 포함 향후 재개발 가능 임야 다수
- 스님 고령화로 매매 원함
- 8억 5천 (조정가능)

010-2415-2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8000만원

010-7289-0059

명상원 최적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연하리 연하계곡
- 부지 : 9,600평, 650고지, 차량진입 가능
- 집 1채 (2층 사용), 집 창고 1채
- 십승지, 사찰 및 사찰 요양원 최적지
- 일반 건강 요양원 최적지, 교육원 시설 최적지
- 글램핑캠핑가능, 최상의 자연환경
- 가 액 : 10억 (약간의 조정 가능)

010-6701-7709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고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4180-1788

탈 종 공 고

- 성 명 : 안병균 (安炳均)
- 법 명 : 연진 스님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봉오동길 108-29

상기 본인은 한국불교 조계종과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 하고자
탈종계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8(2024)년 2월 6일

상기 탈종승려 연진 스님 (안병균)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71호 | 13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 2024년 03월 06일(수)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FAX : 054-762-5889
5. 접수기간 :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6.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관성 지공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올해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④ 부처님 일대기를 읽자(3)



▶한줄 요약
당신은 부처님 일대기를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존재의 치열한 구도적 삶을 만날 건가, 보통의 삶 그 너머의 경지를 차분하게 살피며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을 만날 건가.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을 만나느냐가 당신의 불교와의 만남을 방향을 짓는다.

그댄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은가요



그림 · 최주현

부처님 일대기를 만나는 방법
불소행찬 등 경전을 통하거나
비판적 책읽기로 붓다 보거나
신화 걷어낸 일대기만 중할까
상징체계 안에도 가르침 있어
비판 · 공감적 읽기, 선택 따라
당신이 만나는 불교 정해진다

스님, 길을 나서다

"그동안 나는 역사적인 붓다의 모습을 추구하는 데 골몰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알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부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라는 한마디입니다.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붓다의 땅'으로 왔습니다." –〈성지에서 쓴 편지〉 22쪽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 호진 스님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도반이신 지안 스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행이라는 말은 낭만적이고 홀가분합니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여행하고, 쉬려고 여행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여행'하는 스님은 조금 다릅니다.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경전으로 만나는 부처님 일대기

경전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는 말은, "모든 경전의 가장 앞자리에 부처님 일대기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읽으십시오"입니다. 불전(佛傳)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전들을 소개해볼까요?

〈불소행찬〉은 인도고전문학에서도 최고라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시로 쓰인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불소행찬〉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찬양의 구절들이 낯설고도 살짝 거북스러웠다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차분히 그 내용을 따라 읽어가다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라고 독후감을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자타카(본생경)〉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주변 인물들의 전생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단순히 전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는 옛날이야기만이 아니라 붓다가 되기 위해 어떤 복을 쌓고 공덕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본행집경〉은 아주 방대한 양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어머니 마야왕비의 태에 드는 이야기(제1부), 탄생에서 깨달음을 이뤄 가르침을 처음 펼치는 이야기(제2부), 수많은 제자들을 교화한 이야기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제3부)로 이뤄져 있어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탄생에서 왕자 시절 이야기를 주로 다룬 〈수행본기경〉과, 성불해서 사람들을 교화한 이야기인 〈불설중본기경〉과, 생애 마지막 교화 장면과 최후 모습 이야기인 〈반니원경〉을 하나로 묶어서 일대기를 완성한 것이 〈한글아함경〉(고익진 편역)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라는 초기경전에 담겨 있는 〈마하빠리닙바나 숫따(대반열반경)〉은 석가모니 최후의 모습을 자세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경입니다. 그 밖에도 〈불설보요경〉 〈방광대장엄경〉 〈과거현재인과경〉 〈불설태자서응본기경〉 등등이 있습니다. 율장 〈마하왁가〉에는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부터 승가라는 수행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맘에 안 들어

그런데 부처님 일대기 즉 불전(佛傳)을 보통 사람들이 무난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가장 먼저, 아무리 한글로 번역했다고 해도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읽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고어체의 문투 때문입니다. 둘째는, 불전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웬만큼 인내심이 없으면 다 읽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부처님 일대기에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끈질긴 인내로 불전들을 차례로 읽어나가는 사람들도 다 읽고 나서는 "도대체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 읽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번뇌가 없어지기나 할 것인가"라는 회의가 엄습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로마 신화라면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믿음과 수행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진지한 자기성찰과 자기변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싶은데, 어머니 마야왕비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거나,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일곱 걸음을 걷고, 그것도 모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야기 때문에 불교에 실망감을 품었다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부처님 일대기 만나려고 경전을 펼쳤다가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거부감이 일어 더 이상 불전(佛傳)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의 호진 스님처럼 직접 내 두 발로 인도 땅을 밟아보면서 인간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보겠다는 구도자들도 불교 안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불전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짚어가는 것이요, '비판적 책읽기'의 자세입니다.

고(故) 이기영 교수님의 〈석가〉는 근대 학문의 원전비판 방법을 채택하고 고고학적 자료에 의거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아가면서 부처님 일대기를 추적해보겠다고 서문에도 밝히고 있으며, 영국의 비교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책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는 설화적, 신화적 이야기를 걷어내고 한 인간이 어떻게 지고한 정신적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담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자주 권합니다.

공감하며 읽기

반면 종교적 삶을 완성한 교주의 일대기를 그렇게 자기 눈높이에서만, 확인되는 것만, 사실적이고 타당한 것만, 과학적인 것만 믿겠다는 자세가 전적으로 옳은 독서법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넘어선 비범하고 울림이 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다 간 인물의 삶을 범부(독자)의 수준에서 파악한다면 딱 자기 그릇만큼 밖에는 보지 못하니,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자세로 만나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감의 독서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감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고 보자는 건 아닙니다. 왜 이 종교에서는 그들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말하면서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래전 일본 학자 와타나베 쇼코 박사는 〈불타 석가모니〉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붓다)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종교가의 전기는 초자연적으로 기록하게 마련이다. 19세기 말경 합리주의가 한창이던 시대에는 그 전 것을 모두 떼어내 버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만을 뜯어 맞추어 '인간 예수', '인간 석가' 등의 전기를 쓰는 일이 유행했다. 그러나 그 뒤 종교학의 방법론이 발달한 결과, 얼핏 보아 초자연적인 일처럼 여겨지는 기술은 현대의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겉모습에 상관없이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허구적이고 비상식적이기까지 한 사건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전읽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잘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독자들은 보통의 지루하고 고단하고 불안한 삶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체계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고, 그 내밀한 통로로 발을 딛는 순간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것이 가능하고, 절대로 내게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들이 전혀 걸림 없이 나의 내면에서 확립됩니다. 미얀마의 고승 밍군 사야도의 저서인 〈대불전경〉은 이런 점에서 역작 중에 역작입니다.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맴돌지 말고 나아가세요

물론 비판적 책읽기 방식으로 불전을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치면 언제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독자는 맴맴 자기 자리에서 맴을 돌다가 다른 인물의 일대기로 관심이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존재의 치열한 구도적 삶을 만나실래요? 아니면 보통의 삶 그 너머의 경지를 차분하게 살피며 존재의 바닥을 샅샅이 훑어보고 현실적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뒤 세상 사람들에게도 눈을 뜨도록 안내한 부처님의 삶을 만나실래요? 어떤 방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느냐가 당신의 불교와의 만남을 방향 짓습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 출 발 일 6월 12일 ■ 동 참 금 160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5일
■ 출 발 일 6월 10일
■ 동 참 금 150만원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동참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 출 발 일 6월 11일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180만원
지상 무릉도원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5일
■ 주요일정 장가계+원가계+천문산
■ 동 참 금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 –캔디 불치사–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내 깊은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떠 먹을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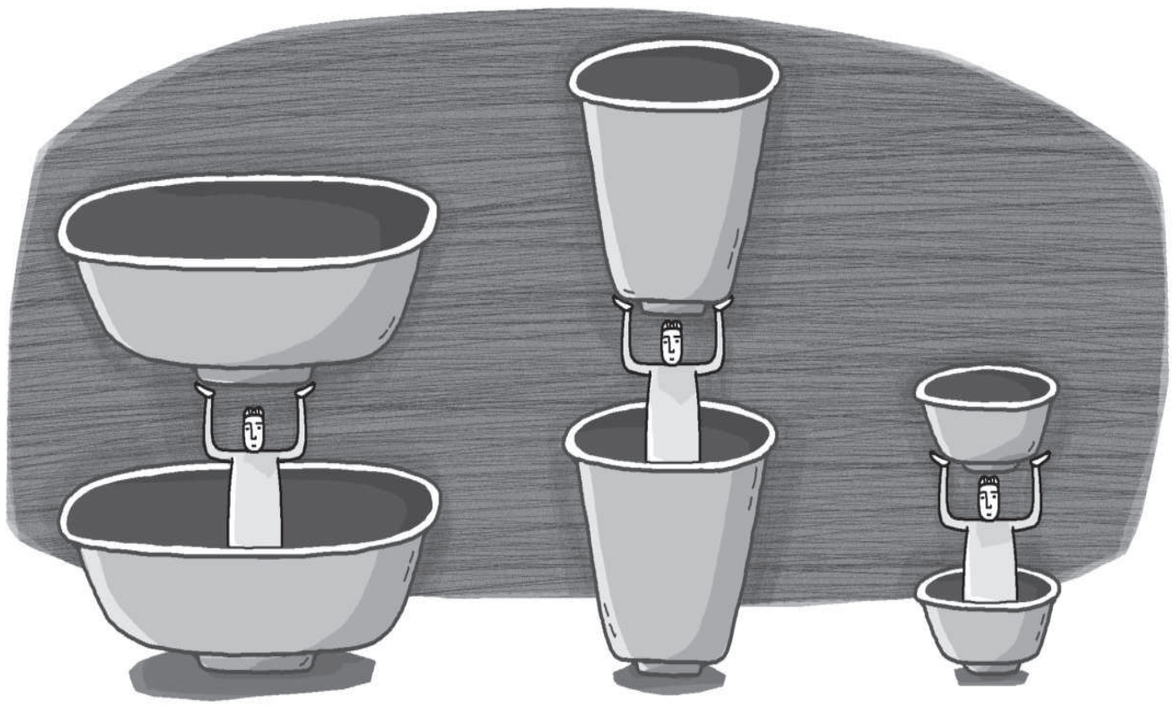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에 가면 싱그럽고 물이 좋죠? 그러니 물은 말없이 날더러 물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에 꽃도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진 풀뿌리를 봤을 때도 나를 보고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은 다 나같이 살라 하니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에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안에다 물을 줘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벌써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도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둘로 보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어도 옳은 거는 옳게 안으로 놓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바빠서 못 온다, 뭐,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왜 내 집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꼭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는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그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 해도 괜찮건만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그 점을 자비라고 합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신도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네 가지를 간추려서 부족함을 무릅쓰고 스님께 여쭤 볼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 육신을 벗고 다음 생에 새로이 몸을 얻는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 태어날 영혼들은 업식으로 인하여 육신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도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생각하면 그 업식이 무슨 까닭으로 소, 돼지 또는 인간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지요?

큰스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이 세상 다 살고 갈 때에는 다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대문 안에서나 고하고 바깥으로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게 됩니다. 또 자식, 부부 또는 권세를 누렸다 하면 따르던 친구들도 동구 바깥에서만이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식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산 것대로 말입니다.

독하게 살았으면 독사가 될 것이요, 남이 먹거나 말거나 사기라도 쳐서 먹으려고 하는 돼지같이 살았으면 돼지가 될 것입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으니깐요. 항상 직결돼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만큼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 여하에 따라서 업식이 자기의 본성을 모두 가려서 눈이 뜨이지 못해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뜨이지 못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돼지가 접하는지, 새들이 접하는지, 고양이가 접하는지, 사람이 접하는지 그거를 통히 분간을 못 해, 눈이 뜨이질 못하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 업식으로서만 남아서 그저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잠자리하는 그 뜻만 알고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돼지 소굴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것이고, 사람 소굴에 들어갔으면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한 대로죠. 자동적으로 그 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점에 놓여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십시오.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습니다. 일체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금은 금방으로 갈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운전사들도 짐차를 하는 사람들은 구역 구역 맡아 가지고선 그 짐차들끼리 모입니다. 그건 누가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하기 이전에 그런 차원에 의해서 모두 모이게끔 돼 있죠. 그러니만큼 자동적으로 그렇게 업식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들고 가는 거죠, 자기가 짓고.

그러니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 업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또 마음공부 하는 스님네들로 하여금 선업도 놓고 악업도 놔라 이러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을 때는 선업도 지을 것이요, 선업을 지을 때는 악업도 지을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남을 탓하리오. 그게 다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죠.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자1(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되돌아보면 마음이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불생불멸 하는 한마음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큰스님 생멸이라 하는 것이 불생불멸이

☞ 16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상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게 있겠습니까

☞ 15면에서 계속

라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죽는다 해서 사람이 없어질 리 없고, 안 그렇습니까? 나무들을 베어서 없앤다 해서 나무라는 것이 없어질 리 없고, 또 그 뒤로 본다면 사람이 죽어서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 까닭에, 나무를 베어서 다른 걸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또 생(生)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죽었다 살았다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생멸이지마는,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불생불멸이다 이 소립니다. 부서지고 변하고 하면서도 끝없이 변함없이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 하는데 우리가 깨달으면 불생불멸이라는 그 언어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발심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삼보에 귀의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초발심의 경지를 어찌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큰스님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냥 오늘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진실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해. 바깥으로 끄달리고 모든 행도 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발심이 십 년이 갔든 이십 년이 갔든 하루가 갔든 일 초가 갔든 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한 찰나니깐.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불어 같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있어서는 십 년과 일 초가 맞먹습니다. 그러니 초발심이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것이 결부돼야 되는 것이지, 이 컵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안 되죠. 결부됐으니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거죠. 지수화풍 그 자체가 결부가 됐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바로 흙과 물로 개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굽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한데 결부가 돼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냥 겉벌로 볼 게 아니라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빈 그릇만 나와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야 이 컵이 컵이라는 빛이 있는 거지 뭐, 담아 먹을 수 없다면 아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깐 물 담아 먹고 음료수 담아 먹고 (컵의 물을 드시며)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개공이 이 컵에도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초발심도 없는 것이고 행한다면 일 초도 안 된다 이 소리지.

질문자1(남)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걸 놓아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어느새 편안한 경계를 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놓는 마음 가운데 편안한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이 깃든다면 잘못 가고 있는지요.

큰스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중생들도 편안하기 때문이지. 모두가 한데 뭉쳐서 놓을 수 있는, 주인공에다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물러서지 않는 진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깐 편안함이 오고 끄달리지 않는 법이지. 그럼으로써 이 우주 천체는 근본 하나로 돌아가지만, 평등하게 돌아가지만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둘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해서 놨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건건이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가만이 놓을 수 있을 때, 죽고 사는 것을 탓하지 않을 때, 그런 때에 비로소 편안하면서도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대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놓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게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된다면 진실하게 구함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는 소식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편안함, 편안함도 여러 가지겠지마는 그냥 무조건 '옛다 봐라, 죽기 않으면 살기지.' 이러고 놓는 거하고, 믿고 놓고 편안한 것하고 다른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두가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감응이 된다면 나 아님이,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그 한마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맡기고, 믿고 진실되게 가야 하는데 믿지 않거나 설 믿는다면, 잘했을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가서 안 되니까 아, 이건 또 도루묵이 돼 버려, 안 되니까.

이거 봐요.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죠. 선업 악업을 다 놔라.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면 높이 놓을 사람은 높이 놓고, 얕이 놓을 사람은 얕이 놔야 일이 되지, 그 작업을 못 한대서야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도 악업 선업을 다 놓고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시켜 달라고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하게 들였어요. 그런데 그만 뒷걸음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남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선 월남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남을 가서 그만 전사를 해서 왔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시금 승진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진실히 했는데 후퇴가 됐으니 어떻게 됐겠소. 그 믿음이라는 게 산산조각이 났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뜻이 있으니깐 후퇴가 됐겠지.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악업 선업을 다 놔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것인데 어떠한 까닭이냐?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대권을 얻었다면 불리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하면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하거나 해롭거나 올려놓을 줄만 안다면 그건 망하고 마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능수능란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휘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 그와 똑같은 거야.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한다는 뜻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모든 거를 이익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얼른 쉽게 말해서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모든 일에 부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부정으로 가게끔 해 주는 거야.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행해 봐야 '아이쿠!'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올려놓을 줄도 알아야 자유자재의 대권을 얻었다 할 것이야.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 하하하. 듣는 사람이 다 잘 추려서 듣기를 바래요.

질문자2(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번 달에 사돈하고 같이 왔던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파 못 견디다가 스님 뵈옵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한 일 개월 동안 하나도 안 아프고 약도 다 끊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 5일 전부터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염치없이 이렇게 또 괴롭힙니다.

큰스님 언제나 남이 주는 것은 그 물 한 바가지 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줬다 해서 물을 그냥 먹고 바가지가 탕탕 비게 만들어. 여러분이 이 공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떠다 놓은 물을 그냥 먹는 거하고, 내 깊은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와서 떠 먹는 거는 다르죠. 내 물 내가 떠다 먹어야 항상 당당하고 또 믿음직하고, 항상 퍼 먹을 샘물이 있으니까 항상 든든하고 그렇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데 남이 떠다 항아리에 넣어 준 물은 아이구, 한 바가지 떠 먹고는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게 달랑거려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랑거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런 문제가 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가서 오늘부터 '아하, 이런 것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는 그것만 딱 먹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이 주인공은 개별적인 나의 주인만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도 일체제불의 마음도 전부 포괄적으로, 스님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하는 거를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한마음 속에 맡기십시오.

질문자2(여) 예.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파 못 견뎠는데 아주 뭐, 안 아픈 사람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본인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 중병이다 보니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이렇게 또 왔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바가지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바가지에 물 주는 것만 그냥 뚝 마시고 말아 버리니 그놈의 거 그냥….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애들을 불난 집에서 꺼내 내려니까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꺼내 놓는다는 걸 아셔야죠. 공부하는데 게으름이 없이 해야 그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죠.

(다음 호에 계속)

>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 바로 자기 아닌 자기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2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④ 항복 받는 것이 나무(南無)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으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식에 의한 내 판단이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한 오해나 착각임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착각과 내 고집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서 표현도 하지 않으니, 생명의 교류는 멈추고 사이는 더 멀어진 것이다.

어느 명절에 한쪽에서 자신의 생각을 항복받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고 손 내미니, 오랜 세월 볼 수 없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어떻게든 표현을 하니 그에 따른 응답이 있어 만나게 되고, 만나니 마음속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서로의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려 업장이 소멸됨을 보았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운함이 싹튼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을 알 수가 없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물며 남이 어찌 알까? 원하는 바가 있다면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현을 가로막는 내 생각과 아집! 아상을 항복 받는 나무아미타불이 불자의 공부 내용이다.

새해, 새날, 새봄을 맞아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정진을 모신다. 정진은, 오롯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래 자유자재하며 무한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부처님의 법문이 과연 나의 일상에서 얼마만큼 살아서 숨 쉬는지 드러난다. '나'를 주장하기에 세상을 괴롭게 살고 있음도 보게 된다. '내가 있다'는 착각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그 '나'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심을 내면서 온갖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댄다. 그러다가도 '남'이 '나'를 존중해 준다든지, 대접해준다든지, 사랑해준다든지, 혹은 인정해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러주시길,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항복하라고 하셨는데, 〈금강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신 한탑 스님께서는 저서 〈금강경법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생, 보고 있는 세계,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므로 항복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판단, 학식, 경험, 지식, 상식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항복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항복 받는 것이 나무(南無)입니다. 내 앞에 많은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의 본래 생명은 아미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에 상관없이 나무아미타불로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서운 느껴
원하는 바 있다면 표현하는 노력을
목적지보다 중요한 출발지 새겨야

이렇게 염불행자의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실은 출발지가 참 중요하다. 나의 출발지가 부처님 생명임을 잊지 않는 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인연들에게, 주고 나서도 주었다는 생각 없이 그리고 받겠다는 생각 없이 오직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발원하며, 문사수법회의 대표법사이신 여여 법사님께서 지으신 새날맞이 발원문을 모셔본다.

"자비로우신 아미타불! 당신의 무한생명 그대로 저의 참생명임을 믿나니, 모든 중생을 널리 사랑하사 미워함이 없고 원망함이 없이 다만 살려주시는 당신의 자비, 그대로 제게 나타나게 하여주소서. 언제 어떤 경우도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중생들의 괴로움 구원하시는 당신의 용맹심이 언제나 제게 나타나게 하여주소서. 당신의 원만하신 상호처럼, 저의 얼굴도 원만해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저는 언제나 부처님 생명 안에 있고 부처님 생명은 항상 제 안에 계시나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곧 당신의 일이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곧 당신의 말씀이 되며, 제가 하는 모든 생각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무한생명을 친견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 무한광명이 나타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밝은 지혜가 열려서, 마침내 완전한 부처님 생명을 성취케 하겠나이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⑩ 피부 가려움증 생활관리와 한방치료

갑자기 가려운 피부, 마음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종종 보입니다. 대부분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피부 습도조절이 안 되어 생기는 소양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가려움증은 너무 많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을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질환 위주가 아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려움증을 풍소양(風瘙痒) 또는 양풍(痒風)이라 하였는데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원인은

첫째,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경우인데 이물질과 가벼운 기계적 접촉, 화학적 물질, 전기적인 자극, 주위의 온도변화 등등이 대표적이며 한의학에서 이를 외감육음(外感六淫)이라고 지칭해왔습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알레르기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데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특히 요즘처럼 봄이 오는 환절기에 바람이 불어 대기가 건조하고 황사 등 환경오염으로 공기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둘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인데 한의학에서 이를 내상칠정(內傷七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장, 불안, 공포, 노여움, 슬픔 등 감정적 소모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학적 검사로 밝혀낼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피부발진 없이 주관적인 증상의 가려움증만 있고, 주로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심해지며 눈꺼풀, 콧구멍, 귓구멍, 항문, 성기 부위가 가려움에 민감하여 대부분 전신적인 피부건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셋째, 음식이나 과로, 기력저하 등 한의학에서 불내외인(不內外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 현대의학에서 일부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특정음식의 섭취로 인한 과민반응뿐만 아니라 폭음폭식, 불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등도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과로나 체력저하로 몸의 기와 혈이 부족해지면 피부건조와 함께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접촉 피해야

그럼 어떻게 하면 가려움증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을까요? 심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몇 가지라도 지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염된 환경이나 먼지가 많아 공기가 좋지 않은 곳을 피하도록 노력하고, 알레르기라고 생각되는 이물질과의 접촉은 금해야 하며 보습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부드러운 재질로 된 것을 느슨하게 입고 면직물이나 견직물로 만든 의류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선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대부분 가려움증, 피부 습도 조절 문제지만
외부자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가능성 있어
폭음폭식 등 불규칙한 생활습관 역시 원인
예민할수록 질환 환률↑…참선, 완화 도움

마음 다스리기 도움돼

또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최선이고, 어쩔 수 없다면 참선이나 취미, 운동 등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부는 사람의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여 인품이 고귀하면 피부가 고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경질을 많이 내거나 예민한 사람일수록 피부 문제가 유발될 확률이 높으니 인격수양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음주를 금하고 생선, 새우, 게 등을 적게 먹으며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가려움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고, 폭식이나 불규칙적인 식사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니 삼가야합니다.

가벼운 소양감의 경우 이렇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기혈진액이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호르몬 대사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 줘야 하는데 한방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물탕, 생맥산, 경옥고 등을 처방하고 있으나, 개개인에 따라 원인, 체질 등이 다르므로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여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승욱 동국대 일산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



전법 일기

시누이가 미운 마음 대화로 녹인 보살님

"스님! 스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지금 할까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시작된 팔순 노보살님과의 대화.
"스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용은 대강 이렇다. 남동생이 요양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괴로운 심정이고 잠도 편히 못 주무신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시누이가 남동생을 요양원에서 나오게 하고 집에서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이 있겠는가. 잠시 이야기를 들으며 노보살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대개 듣는 과정은 비슷한데 괴로움을 알고 나면 서로 대화하면서 원인을 찾는다. 보통은 괴롭다고만 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사람이다. 나는 보살님에게 물었다.
"그럼 아내도 아이들도 남동생 돌보는 것을 포기한 것 같네요. 거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생각해봐도 동생이 늘 아프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 그 식구들이 긴 세월동안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살님은 그제야 동생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유연해지는 모습이었다. 부처님과 보살님도 누군가의 마음을 세 번 들어주는 대화 방식을 사용했듯이 나는 보살님에게 조언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할 분은 동생의 아내가 아닐까 싶어요. 동생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세 번만 하시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날 법회를 마치고 저녁 즈음 보살님의 전화를 받았다.
"스님!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입장이 이해돼요. 그동안 시누이가 부담스럽고 원망스러워서 말도 못 붙였는데 1시간 넘게 통화하고,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제가 미처 시누이 마음을 살피지 못했네요."
보살님에게서 오전 상담과 달리 많이 안정된 목소리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불편하고 대화가 망설여지는 것은 나도 상대를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화를 해보니 내 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길이 보이게 된다. 노보살님은 이걸 바로 실행하셨으니 지혜롭고 용감하고 훌륭한 수행자시다.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을 만나 진정되고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공감하고 위로해 새로운 용기 갖도록 돕는 일. "붓다가 인도하는 이 길은 근심·걱정·탄식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념처경〉에서 말하고 있다. 노보살님에게 그 길을 일러준 것 같고 그로써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을 본 것 같아 보람 있는 하루였다. 참 고맙습니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는 어떤 용의 모습일까

갑진년(甲辰年) 구정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청룡(靑龍)의 해에 들어섰다. 용은 12지(十二支)의 동물 가운데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비늘은 잉어,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용을 마귀의 상징으로 언급하지만 동양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 임금이 입는 옷은 곤룡포(衮龍袍),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龍牀)이라 하여 왕권을 상징했다. 사찰에서도 용은 불법을 수호하거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상징으로 불전의 기둥이나 외벽, 범종을 매다는 고리에 용을 그리거나 조각했다.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일컫는 주역(周易) 또한 중천건(重天乾)괘는 용으로서 괘사를 해설하고 있다. 주역 64괘의 모든 언어가 상징이지만 중천건괘와 중지곤(重地坤)괘는 상징 중의 상징이다. 특히 첫 번째, 중천건괘는 잠룡(潛龍), 현룡(見龍), 비룡(飛龍), 항룡(亢龍)으로서 용이 주체가 되어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와 인간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밝혀 준다. 용은 물속, 땅 위,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상의 생명체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밝음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작아질 수도 있고, 거대해질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다양한 용들 가운데 어떤 용의 모습일까?



그림 · 최주현

맨 처음, 잠룡(潛龍)은 물에 잠겨 있는 용이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형상이랄까. 이제 막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니 날뛰지 말고 오직 힘을 기르면서 능력을 축적하라는 뜻이다. 무명과 미망으로 헤매던 내가 불법(佛法)에 귀의하여 조용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현룡(見龍), 이제 뭍(田)으로 나와 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단계이다. 슬며시 세상으로 나가보지만 아직 머리를 곧추세울 수는 없다. 현룡재전(見龍在田)이라. 몸을 드러낸 용이 밭에 있으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한다. 즉 밭이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을 일컫는다. 탐진치(貪瞋癡)로 뒤덮인 마음의 밭을 갈고닦아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5효)는 비룡(飛龍)이다. 드디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내가 왕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가장이 되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올랐다.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견성(見性) 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참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가르침이다.
마지막은 항룡(亢龍)이다.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용이다. 내가 으뜸이라고 머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을 살아간다.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천건괘는 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팔정도(八正道)나 십우도(十牛圖)를 떠오르게 한다. 용의 해를 맞이하여 나는 어떤 용의 형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작가〉

기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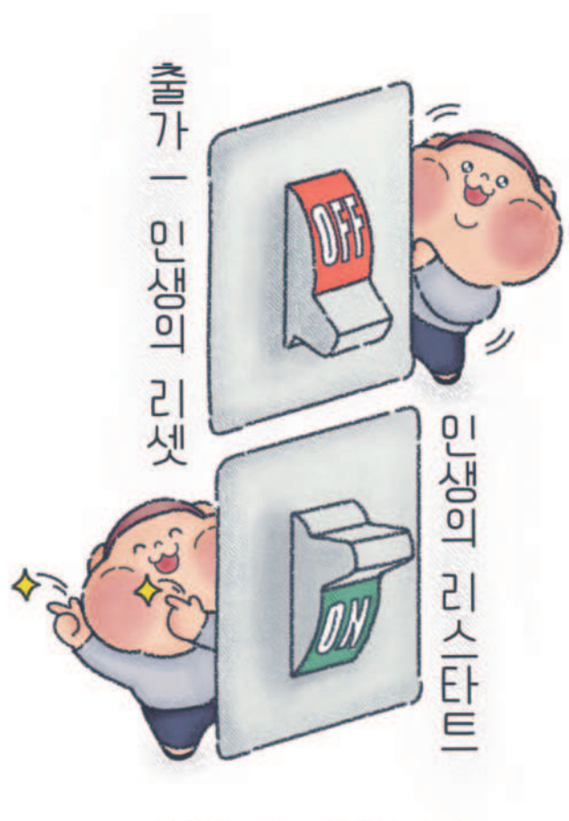
불교라는 구슬, 어떻게 꿸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특별전 '스투파의 숲' 설명회를 가졌다. 특별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대기하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스투파의 숲' 전시 굿즈들이었다.
기획전시실 앞에 마련된 스토어에 들어가봤다. 전시 도록이나 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스투파의 숲 티라이트 홀더, 보리수 꽃 컵캔들, 남인도 연꽃 넝쿨문양 전등갓,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굼바 보타닉 베이스 등 라인업이 화려했다.
직원에게 가서 가장 인기품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직원이 소개한 최고 인기 상품은 '스투파의 숲 보배 108염주'였다. 수행자의 성취와 성공을 기원하는 호안석 원석과 명료한 자각과 예술적 감각을 의미하는 자수정 원석, 정화를 상징하는 백수정 원석으로 제작된 티베트 형식의 108염주 가격은 무려 10만원. 그럼에도 가져다 놓기가 무섭게 관람객들이 구매해 간다고 한다. 설명회가 열린 날도 '일시품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옆에 있는 몇몇 미니 염주와 단주들도 품절된 것들이 상당수였다. 이쯤 되면, "굿즈 사러 박물관 간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이리 인기가 좋냐"는 기자의 질문에 판매 직원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전시 기획 초기부터 제품들을 선정했다. 108염주는 전부 수공예로 작업해 가격대가 있다. 그럼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필자가 감탄한 기획력이다. 전시와 함께 판매 굿즈를 연계 기획해낸 것과 단순한 불교용품점에 가면 흔하디흔한 108염주를 작품으로 기획·제작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108염주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와 같이 누구나 구매하길 바라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불교라는 구슬을 문화라는 실로 어떻게 꿰어낼 것인가. 이것이 불교계의 숙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글 bubjang & 그림 milmil

어싱 매트·베개·온열방석 특판 할인

※ 어씽(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구절초 샴푸 증정
기간 : 2024년 1월 25일~2월 13일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S
판매가 1,980,000
⇒ 할인가 1,800,000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매일 30분, 찜질로 면역력깨움!
그래핀 온열 어싱매트
#깊은잠 #면역력 #건강회복 #붓기 #몸이개운해짐 #정신건강



하루 15분, 앉아만 계세요!
그래핀 좌훈 케겔운동기
#케겔 #좌훈 #남녀공용 #근적외선 #하체코어근육 #항문질환 #음파운동기



숨 그래핀 어싱 베개(아치형)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교화 혁신, 어떻게 이룰까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젊은 층 불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 신도의 지속적인 확보와 관리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교와 교화의 부진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도제 양성, 교화자·신교도의 정체성 확립, 종단 간 사찰경영 성공사례 공유, 도심 및 국제포교 활성화, 전통과 현대의 접점 모색, 불교문화의 대중화, 다양한 사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생활불교·생산불교·참여불교 지향,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불교식 장례문화 개발 등 다양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와 교화이며 이것이 없다면 종단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미래 포교에 대한 수두룩한 대안만큼의 섬세하고도 과감한 실천이 좀처럼 뒤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왜까? 흡사 학령인구 감소의 암초를 만난 지방대학이 좀처럼 개혁의 뱃머리를 치켜세우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젊은 불자 층 감소로 인한 불교계 내부의 활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돼 있는 듯하다.

청소년들 사이엔 소위 '아신교(我信教)'란 말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고 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성

나를 믿는다는 '我信教' 유행 중
기성종교 필요 없는 세상 되는가
포교 교화없이는 불교 미래 없다

직자들이 세속인과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유일신도 필요없고, 부처님도 필요없단다.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열심히 살기로 했다는 거다. 씁쓸하지만 마땅한 항변이 떠오르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주말마다 '뭉치던' 숱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종교인의 지탄을 받았던가! 전염병 창궐의 인연에서는 소통과 화합보다 그야말로 격리와 고립이 무난한 해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시절 인연이 바뀌었지 않은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에겐 또 다른 교훈이 있었으니까. 타인의 행복한 웃음 속에 존재해야만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마스크로 가려진 우울한 일상 속에서 새삼 발견한 평범한 진리였다. 역시나 사람에게 종교는 필요하다.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이들이 타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세속을 넘어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AI시대의 미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종교만의 고유하고도 성스러운 영역임이 분명하다.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말씀처럼 "불법은 체(體)요, 세간법은 그림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불법은 세간법과 혼탁하게 뒤섞이고 얼룩져 종종 말법(末法)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진각종에서는 1월 8~14일에 걸쳐 '은혜와 회향이 희망'이라는 총인의 새해법어 아래 전국의 종도들이 큰 원력을 모아 '갑진년 새해대서원불공'을 봉행했다. '심인(心印)'은 곧 부처님 마음이고 무상의 마음이며, 또 은혜로운 회향의 마음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공양할 수 있는 만다라 세계 구현을 통해 불교계 교화의 혁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서원한다.

사적제재와 자비 윤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사적제재(私的制裁)'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국가 또는 공공의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 이러한 사적제재의 역사는 매우 길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적제재는 일반 국민에게 통쾌감과 희망을 준다.

오늘날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사적제재는 은밀한 성격이 강했는데 온라인 시대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죄를 지어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교묘하게 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유포하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법 집행의 문제점도 거론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법률 체제와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미흡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적제재의 문제점이 매우 많다. 오판의 위험, 무고에 이용 가능성, 자의적인 처벌, 법적 질서에 대한 불안정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사적제재의 피해로 자살을 한 청소년의 사례도 있다.

유튜브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적제재
오판, 무고 등 사적제재 부작용 많아
타자 향한 연민 바탕한 자비윤리 중요

사적제재의 문제는 결국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필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정치철학의 측면에서 제시한 '연기론적 정의론'을 소개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세계적 석학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고정 불변한 정의론의 아트만(Atman)을 부정하고 '타자'와 함께 가는 '열린 정의론'을 주장한다. 붓다의 대기설법을 연상시킨다. 연기론적 정의론에는 '자비'가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비의 윤리와 정의의 실천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꽤 있다. 자비는 희생의 윤리이며 따라서 부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자비는 용기와 강인한 기질을 요구하며.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주문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철학계 원로로서 〈자비의 윤리학〉을 저술한 고 박이문 교수는 자비를 '보편적 덕'으로 규정한다. 기독교의 박애와 유교의 인의 덕목은 자기에서 타자에게 보내는 덕목인 데 반해, 자비는 항상 타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윤리라고 본다. 이렇게 타자에 대한 연민과 배려에서 나오는 자비의 윤리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해소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자비 없는 정의는 없고 정의 없는 자비도 없다. 정의로운 자비 공동체 구현의 큰 길이 불자 앞에 펼쳐지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앞으로 오실 붓다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에 많은 영감을 준다.

社 說

보스턴미술관 사리 환지본처에 부쳐

석가모니 부처님과 고려시대 고승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및 사리구의 환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리는 불교의 성물로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조계종에 기증키로 했다. 사리구는 상호 교류 전시 및 보존처리 등을 위해 임시대여하기로 했다. 보스턴미술관에 소정된 사리구의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로,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 성물이다.

고려시대 불교미술 정수 담긴 사리구
안에 부처님과 고려 고승 사리 안치
2009년 시작한 논의 15년 만에 빛 봐
문화유산 환수, 全국민 관심이 원동력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주 회암사가 원소장처다.

양주 회암사는 조선시대 보우 스님이 문정왕후 후원에 힘입어 조선불교 중흥의 기치를 휘날린 근본도량이었으나, 문정왕후 사후 유생의 보복으로 방화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성보문화재와 전적, 사료 등이 모두 소실됐다.

회암사 유물인 약사삼존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쿠가와미술관 등에 보관됐고, 석가삼존도는 미국 뉴욕 버크 컬렉션이 소장 중이다. 청동발우와 지공 화상 비편은 경기도박물관과 동국대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고,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하는 등 성보문화유산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구의 경우 2009년 불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환수 운동이 일어났고, 미술관과의 지난한 협상이 이뤄졌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환수 협상이 재개됐다.

이번에 기증되는 사리는 한국 불교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고려시대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부처님오신날 이전 돌아오는 만큼 조계종은 여법하게 모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은 약 24만6000여 점으로, 일본이 10만9000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6만5000여 점으로 두 번째다. 영국과 독일, 러시아, 중국 등 29개국에 우리 문화유산이 나가있다. 이들이 모두 약탈되거나 불법 반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나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들도 있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의 경우 성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무단 반출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기에 불교계는 어느 단체보다 문화유산 환지본처에 진심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고, 북관대첩비 환수를 이끈 사람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스님이었다. 지금도 이천시와 이천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일본 오쿠라호텔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위해 뛰고 있다. 문화유산 환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다.

이번 사리 환지본처로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되찾는 환수운동에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베이지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 68%할인 ₩158,400 총 40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